

송영의 <역사>

이상우*

<역사>는 하버드 연청도서관에 소장된 친일극 대본 자료로서 1943년(소화 18년) 5월 송영에 의해 완성된 4막 6장의 희곡이다. 이 작품은 194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된 제2회 국민연극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작품상을 받았다. <역사>는 극단 예원좌(藝園座)에 의해 1943년 11월 19일에 부민관에서 공연되었다. 연출자는 나웅, 장치가는 강호였다. 당시 제2회 경연대회의 심사를 맡았던 주요한(창씨명, 松村紘一)은 경연대회 참가작들에 대해 논평한 글 「戰ふ演劇の姿 ; 第二回競演大會を觀る」(『新時代』, 1944.3)에서 송영의 <역사>가 '박영호의 <갈매기>와 더불어 조선 극운동의 한 시기를 구획하는 작품'이라고 극찬하였다.

<역사>는 1942년 경성을 배경으로 어느 보수적인 유교 가정이 시국 인식에 눈떠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완고한 보수주의자인 삼하(三霞)의 집안은 유교적인 구도덕에 사로잡혀있다. 삼하의 아들은 그러한 집안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여 친일운동에 매진하다가 세상을 뒀는데, 아직도 삼하는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삼하의 며느리 문향(文香) 부인은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집안의 보수적 분위기를 유지

* 영남대학교 동양어문학부 교수

시키는 자이다. 그 첫째 아들 원회(元會) 또한 어머니 문향처럼 삼하에게 순응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문학도인 둘째 아들 중회(重會)는 그 형과 달리 집안의 완고한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인물이다. 결국 그도 자기 아버지처럼 집을 뛰쳐나간다. 셋째 아들 경희와 딸 옥희도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체제적 인물이다. 이렇듯 <역사>는 완고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 신체제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족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삼하를 정점으로 해서 문향과 원회로 이어지는 보수적인 인물들은 결국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젊은 세대 인물들에 의해 설복당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철회하고 신체제적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 개인과 가정만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였던 원회는 국가를 위해 금융업에서 조선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병원에 윈트겐을 기부하는 등 애국적 사업가로 변신한다. 문향부인도 자원병으로 입대한 셋째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손녀에게 일본어를 배운다. 집을 나간 중회는 다시 돌아와 식구들과 화해하고 과거의 비판적 태도를 반성한다. 그리고 국민문학운동에 투신할 것을 다짐한다. 가문의 마지막 남은 보수주의자인 삼하도 결국 아들의 제사에 배례함으로써 가족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된다.

이 극은 가족 내의 감정적 갈등과 그 해결을 그린 멜로드라마로서의 친일 목적극으로 볼 수 있다. 이 극에 나타난 목적성으로는 수산업, 조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양정신의 고취, 일본어 교육의 강조, 자원병 입대 등의 요소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극에서는 일본어 대사의 사용이 많이 엿보이고 있다. 송영의 이전 작품에 자주 등장하던 하인 ‘춘보’의 재등장도 주목을 끈다. 일제 말기에 송영이 쓴 일련의 친일극 작품들 즉, <산풍>·<달밤에 걷는 산길> 등에 비해 안정적인 극적 짜임새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극경연대회에서 작품상을 받은 수상작이라는 점,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대조하여 일제 말기

송영 작품세계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三

霞

(다시 이러한다 거림같이섯다)

◇ 一同 感歎하다

◇ 文 鄕 손짓으로 一同을指揮해서드리고나간다. 一同 발소리없이退場

——幕——

(昭和十八年五月五日畢)

文 玉

御 粧

◇ 惠玉, 山紅은 걸고 退場

어머닌 안나가게요

나가보잡구나

(초롱의분, 床위의쭈불을고고 退場)

(부덕의불도 꺼진다)

◇ 어두어진다. 종료해진다

— 사 이 —

◇ 사랑문이 가만히 열리면 三霞翁가만 히 退場. 壽園은 보살하며 밖으로

러도 내지 않는다. 衣冠을 整理했다. 마루도 올라간다. 안방과 거는방을

注意있게 보살한다. 석양을 꺼내서 가만히 退場을진다. 喜入의 眞像을 두

려지도루 본다

— 사 이 —

◇ 七曜의 앞을서서 발소리를 킁이고

손짓을하면 家族은 리축한다

文飾等一同 가만히 退場

모두 이 光景을 바라본다

三 殿

(반복히 拜禮를한다, 엄디려서 이어나지을 안는다

다 고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配干 조화하시는게 아나세요 눈을까지 흘니었답니다

그래서 나도 明媛이 하고 요달에 어른이 되드래도 사함을말자고 約束을했

답니다

그러면 고만쓰겠습니다

하로밤비 셋재아버지가 가슴에다가땀나는 金鵝勳을 번덕이시고 썩々하

게도라오시기만기대합니다

안영히 게서요 잘사워주세요

八月추석날, 하라버지제삿날에,

明媛, 明媛이

◇ 그동안 文嬭은 눈물을씨었다 一同 말할수없는 感激에빠졌다

明 媛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할아버지, 잘셨죠

(집어서넋는다) 할머니, 옛대요

明 文 예구 그것, 畝特을도하지 (머리를쓰다듣는다)

媛 郡 할머니, 立介이 역이든 내가 할말예요

◇ 立介이 부엌으로들어간다

明 惠 媛 玉 あはたも えら

媛 玉 立介의 부엌으로들어간다

민망하듯이 생긱이웃고 셋답니다

셋재 아버지, 연래 호슈이는 아조, 어른색시같이 연들의염버젓답니다

그리고 연래든지, 셋재 아버지역이꽃테는 부끄러워한답니다 왜 그렇게

붓고면후성인지물느겨서요,

이편지를쓰다가 염눈으로 할머니께서 닥고게신 쥬친그릇을보고 우리들

은, 저눅그릇으로 충업을만들면, 열마나 많이만들어질가, 그충업을 셋재아버

지가 가지시면 열마나 勇敢하게 잘싸호실가, 이런생각들이나서 지금

明懐이와갓치 초할아버지한테, 눅그릇을獻納하십사고 말씀드리려고 사랑

으로나갓다가 엇뎡께 야단을맞는지물느겨서요

개니 우리들때문에 할머니까지 구중을들으셨서요 아이구, 이런완고 할

아버지는 보기를 침뵈서요

X

그런데 셋재아버지, 인제 우리아버지도 각금웃으시고, 그리고눅잠구뎡

이, 우리어머니도 일직얼어나시고 防空練習에호슈이를代身도안내보낸답니다

畑田아주머니도 病院에 熱心으로만기신답니다.

그리고, 참, 그동안 나가게시든, 輪재아버지계셔도, 아주 じつじ

한小説家가돼서, 틀아오겟답니다

그래서 맛나면, 싸호시든, 아버지하고도, 아조, 웃는낫으로, 서로, 잘뵈뵈

明

媿

다른게 아니라고요. (품속에서 慰向文을 꺼내들며) 아버지, 이것은요, 저이들의 악가, 戰地에게신 셋재 아버지께 보내려고서는, 慰向文인데요.

먼저 보내기전에, 할아버지께한번 들켜들일가하는데요

좋다, 읽어드려라, 적, 깃버하실거다

할머니도 들으시고 모두들으세요

쓰키는 언니가 써도요 이속에는 내말도 많이 있으니까요

◇ 一同 微笑

(氣着姿勢을하고서) 할아버지

이편지는 저이들이 戰地에있는 셋재아범한테보내는편지여요

판들어주세요, 잘못된말이있드래도, 웃지마세요

(守直에게禮를하며) お親にします

(편지를 읽는다)

셋재 아버지

그동안 안영하셨습니다가,

별서 가을이와서 여기도 제법선々합니다 그곳은 별서 겨울갓치 치워

졌것쥬, 열마나 치우시겠어요,

오늘은, 秋夕명절날, 할아버지의祭祀날이올시다, 지금 아버지께서는祭床을

차리시고 할머니께서는 마루끝에서 그릇을행주질치고계십니다

春甬할아범은 할멈한테 女必從夫라고 또 악을쓰고 그옆에서 立介이는

第二場 밤

○ 그날 밤

◇ 초롱에 불이 언저져지며

— 明 —

◇ 神位에는 春人의 寫眞이 安置됐다

簡素한 祭物이나 洋潔하고 嚴肅하다

◇ 마루끝에 立介母 卍섯다

◇ 마당에는 春甫, 芾를 보았다

◇ 안방편으로 文齋, 玉璫, 惠玉, 山紅이 設다. 文齋 더한 喜怒哀愁에 싸혀 있다

◇ 元會는 中央에 右便에 重會, 左便에 明姬姉妹 절을 하고 있다

◇ 女人们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 元會, 重會의 順序로 蓋을 올린다

— 問 —

明 아버지, 저이들, 저 할아버님께 역이해도 편찬요

會 (기특하게 여이며) 음

會 무슨 말씀이냐

明 兀

明 文 明

媛 御

◇ (C를 막질기서 혼든다)
감々하다

(크게) 초할 아버지 둘째 아버지들이 왔선요, 둘째 어머니도 애기 없고 왔선요
(막뚜들긴다)

며엌아

(몰은척하고) (두주머니모자를막뚜들키며) (눈아 띠얼어, 둘째 아버지들이 오
셋서) — 아이구 모두 귀가 먹었나 — (더 — 크게) 초할 아버지

◇ 별안간, 三讓의 時調은는소려

◇ 明媛, 눈이동그래져서 가만히 귀틀기우려다

◇ 一同, 宗용해진다 모두 그편을바라본다

山紅만 고개를 숙인대로 있다

◇ 時調소려 / 더, 귀질더

— 暗 —

元	會	그분은 훌륭한 우러진 안식이 가될만한분이다. 나와 어머니의 우여불데니
重	會	正式으로식을奉行하도록하자
文	會	문남, 엇딴게 하겠습니까?
重	會	그동안, 문이 問難을해서 그제어법을 삼님을차려주고 너오기만기대리고있었만다
重	會	네, 어머니 —— 문남 (고개를숙인다)
重	會	◇ 以上두兄弟對話中에, 文鄉과玉嬪는祭物を茶床위에 버려논다
重	會	◇ 惠玉, 어린애명은 山紅이와장場
惠	玉	山紅, 더한중 賢淑한차림 < 이다
重	會	惠玉아
重	玉	아, 들재오라버니
重	會	여보 (山紅을본다)
山	紅	(고개를숙인다 눈물을씻는다)
明	會	叔母之心 叔父之心が 立派な叔父之心になつて 故つて来ましたよ
重	會	고맙소
山	紅	(文鄉과元會를에게뵈자, 고개를숙인대로 눈물을씻으면서)
文	鄉	(눈물을씻는다)
明	媛	◇ 春浦一族도 나와섰다
明	媛	할머니 내 舍廊門열나고 그렇게

文

鄭

홍중야, 짝이든 고만 해두고 어서 할아버지 좀 나가 빈와라

重

會

네, (이러서서 사랑편을 타보며) 추를 사랑은 잘 취했습니. 다 그려 할아버지 의世上은 언제나 쟁함이 가 어머니

元

會

할아버지야, 쟁하지 않으니

그렇나 할아버지의 피는, 지금도 國魂하고 남의게 감히 지안는 뜨거운 피다.

홀리고 홀리니서, 우리들의 國魂으로 쟁하지 않았기, 첫번출니서, 아버지의 國魂은

義가 되고 다음으로 홀리니서, 우리들의 지금이 되고 또 홀너가 버려간 것이 쟁한 그릇까

지 獻納하려 하는, 전애들의 愛國心이 되지 않았니.

(인하는, 玉體를 보고) 저렇게 아주머니께서도, 문배아를 입으시고

홍보지마세요

玉

姓

(내려온다) 참 어머니 惠조이도 如前하죠

文

鄭

그야, 식집갈생각도 안하고 無料病까지는 데에만 열상성이, 나지 않았니

重

會

여, 하, 必(必)리 傳(傳)이

元

會

그런데, 해, 너 누구차 저분 사랑했니

重

會

누구요?

元

會

그러나, 너를 기머리는 사람은 없니

重

會

네? (이상스러히 생각한다)

玉

姓

서방님, 아드님이 지금 열마름 컷스리라고 생각하세요

重

會

네, 아들로 (어려등절한다)

會

어머니 그래도 제 몸속에는 이 집안의 피가 흐르^{있고} 피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제 피는 고리를 맞습니다. 아모런 데들 간들이 피야 더러워질 수가 있거나 거기에

名門의子孫 志願兵으로 — 아조大書特書한記事와가치 慶會의무후이 뒤
렸이 나있었습니다

慶會의씩々하고 구든意志를생각하고 우리집안의빛나는傳統을속으로 기뻐했습

니다 아조鄭重

會

고개를 끄덕

會

그러 내가 가지고 있는藝術的思想을다시한번反省했습니다 藝術이란 한
個의傳統이었지 않으면안된다. 주 歷史가없으면안된다. 언제나 어디에서
나 빛날수있는 —

그러면, 지금 우리를藝術家가 가진歷史性이란 傳統에빛나는 우리들의國民의
思想과生活을 積極的으로形象化하는데에있다 머건의 제가 깨달은結論입니다

그래서 저는 銃대잡는決意로써 북머를잡고 健全한國民文學運動의한兵卒이
되려고합니다

會

고맙다, 내가 金融業을 造船業으로轉換한것도 아니飛躍한것도 더와가든心境
이다

마시말하면 우켓들의문에는 네가 말한바와같이 우리집안의피가 흐르고있
다,江을과같이 쉬지않는 피다 傳統이다 歷史다,

文 鄭 重송야, 역시는 고만해두고 어서 할아버지 좀 나가 빈와라

重 會 네, (이러서서 사랑편을 따라보며) 초를 사랑은은 잘 먹었습니다. 다그려 할아버

重 會 지의世上은 연제나 覆함니까 어머니

元 會 할아버지야 覆하시지않으신거다

元 會 그렇나 할아버지의 피는, 自己를 覆執하고 남의게 급히지안는 뜨거운 피는

重 會 홀드고홀너서 우리들의 覆執으로 覆하지않았나 첫번홀너서 아버지의 覆執으로

重 會 義가되고 다음으로홀너서 우리들의 지금이되고 또홀너가 버려간 것이 覆執이니까

重 會 義獻納하려하는 전애들의 覆執이되지 않았나

重 會 (인하는 玉璽를보고) 저렇게 아주버니께서도 문베이를 입으시고——

重 玉 媿 홍보지마세요

重 會 (내려온다) 참 어머니 惠조이도 如前하죠

文 會 그어애 식집갈생각도안하고 無料病곳지는데에만 열상성이 나지않았나

元 會 ぬつは、ぬつぱり 偉い

元 會 그런데, 애, 너 누구차려볼사람없나

元 會 누구요?

元 會 그러나 너를 기머리는 사람은 없나

元 會 네, (이상스리히 생각한다)

玉 會 서방님, 아드님이 지금 열마음 컷스리라고 생각하세요

重 會 네, 아들이요 (어려등절한다)

重 會 어머니 그대도 제 몸속에는 이 집안의 피가 흘러 이것은 피다 피된 몸을 당하면 당할수록 제 피

는 그리울 것입니다 아모런데들간들이 피야 더더워질 수가 있거나 거기에

故郷의 新傳을 어더랐습니다 거기에 아조대흥특출한記實과 가치 慶會의 浮沫이 두

가 名門의 子孫 志願兵으로 아조대흥특출한記實과 가치 慶會의 浮沫이 두

重 元 會 (고개를 끄덕) -----

그런 너가 가지고 있는 藝術的思想을 다시 한번 反芻했습니다 藝術이란 한

個의 傳統이었지 않으면 안된다. 즉 歷史가 없으면 안된다. 언제나 어디에서

나 빛날수 있는 --- 그러면, 지금 우리들 藝術家가 가진 歷史性이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의 國民의

思想과 生活을 積極的으로 形象化하는데 있었다 머리가 귀가 깨달은 結論입니다

그래서 저는 統대잡는 決意로써 북머를 잡고 健全한 國民文學運動의 한 勇卒이

되어 고함나다 고맙다, 내가, 金融業을 造船業으로 轉換한 것도 아나 飛躍한 것도 너와 같은 心境

이다. 아시 말하면 우겨론의 몸에는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집안의 피가 흘러 고

文 郷 그런데, 대관정 어의로 들이 단기가 왔니 週희꿈보이나 하지 않았니

重 會 꿈보이라면 꿈보이지만, 이번 꿈보는 저를 새롭게 만들어 준 恩人입니다 어머니

文 御 자, 그러나, 어서 올나가거라

重 會 네 (올나간다)

元 會 너, 오늘이 무슨 날인줄 낮지 않았겠지

重 會 낮일이 가 있겠음니까, 근심, 喪狀은 오늘까지 집으로 혼야 오려고 해서 이렇게 왔

會 습니다. 汽車속에서도, 흥, 延禧이 나오면, 덕담하고, 哀를 씁니다 (마루

로 올나가서, 왔다 갔다 하며, "아하" "하" 하며 感歎을 漣漣한다)

元 會 兄님, 昨年 오늘에는 東大門 밖 어느 좁은 橋속에서 "兄부" 라는 小疏를 쓰고 있었

습니다. 兄님, 용서해주세요

元 會 善與 그 小說에件, 네 銳利한 批判力을 알 수 있었

重 會 도리 허부고 있습니다 作者의 思想이 健全치 못하는데, 엇던게 健全한 作品이나 오겠음

나, 가 어떤 理想이나 가진듯이, 自己心만은 強했습니다. 만은 事實은 實踐할 힘의

없는 空想이었습니까

元 會 나亦是, 엇던 한테 두리안에서, 하여나지 못하고 있었

重 會 兄님, 제가 北窓로 가서, 한 개사나 히로서,의 生命의 呼吸을 捉게 되기까지는, 말한

수 없는 곤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까지, 빠버릴 경우도 당했습니다

文 會 아이구, 그러하니 오작이나, 고성이 되겠나

會 아이구, 그러하니 오작이나, 고성이 되겠나

— 사 이 —

重 文
會 鄉

을나가거라

여기가쪽입니다 (마루끝에가 걸터앉는다. 一幕. 出家直前에 앉았든자리와)

元 會

무슨참뻘한말이나

重 會

아니올시다 저는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그前 제가 집을떠나갈때에 바

로 이차리 이럿게 앉아서 (두팔을뒤로잡고몸을누이고 天井을치다보는포스)

一幕 出家 卽前의포스다 상은잔뜩정그렸습시다 그때는 이차井도 이기들도

집안모두가 미움계보히고 웃음계만모혔습니다 보담도 저한을도 원세상사람

들도 모두가 웃음고허술해보여서 비웃고안심했습니다

一 會
同 會

그렇나 다시도라와보니까 우리집까지 偉大하고 즐거운데가없습시다그러

어님 그때 제가 元님을非難했죠 勿論元님에게도 非難을마들만한일이 없었

든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兇狀은 그때 저는 남을非難하기거냥 親自에

더만한 缺점이 있었습시다

나도 그럿게 생각한다 그때 너한테 非難을바드면서도 속으로는 너를敬伏

했다 그래도 네게는 霸氣가있다고 — 그렇나 너게도 霸氣는있었다고

川間

三 覽 (大斤을 치다 보며 沈痛한, 그리고 悲壯한 表情이다)

◇ 明妮, 흥분이 돼서 떨리는 붓곳으로 편지를 계속 쓴다

三 霞 도대체 너의 아버지가 뭐된 녀석이다 父母를 背反하고 妻子를 버리고 혼자

뛰어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될 줄 알고

되기는 뭐 돼, 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萬古로 不廢인데, 제 몸 하나 건사하

지 못하는 녀석의, 제 집안 하나 건하지 못하는 녀석의, 成事는 무슨 成事야 흥, 괴악한

자식도 다 많지

元 會 할아버지 아버지 계신도 훌륭히 成事를 하셨습니다 저런 철업은 어린 것들까

지 나랏을 爲하는 忠誠된 마음으로 祖上을 爲하는 祭掃까지 닦아 치겠다고까지 된

지금世上은 아버님 같이 신 正覺者들이 싸우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三 霞 말마라

元 會

三 霞

(文卿에게) 할애비 말더담을 하도록 만든 것이 모두 네 의不敏한 까닭야

뭐냐 子息들을 子息다 하 건 너지를 못하고 모두 가닥 / 나선 놔두는

文 鶴

◇ 玉璣, 부러져서 들이온다 訓練을 하고 들이온 모양이다 이마에, 멍땅울의 어렸다

元 會 아모도 식히지 않았습니까
三 會 自釐가 아니라 저의들이 승화했습니다

元 會 萬一식헌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時代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聚精會神

호수같이 所重하시게 됩니다 저들이 聚精會神한 정도 아옵고 戰爭의 變遷

가 變遷한 줄은 아오나 萬一 獻納하겠다는 勇氣만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애들

은 輸番은 獻納하자, 뭐든지 나라를 爲해서 仗義한다는 未嘗과 失禮합니다

이것이, 다, 그때 <의時代가 식힌 것입니다 할아버지時代와 現代와

또 저애들의時代는 그만큼 사뭇 變遷하는 것이 달나 지는 것이 없습니다

三 會 잊기 싫다 옛 時代라도 根本을 잊는 법은 없다 뿌리 없는 가지가 있는 내 말

OK

元 會 그렇구나 根本을 잊지 않는 形態간은 작구 달나 갈 수가 있습니다

三 會 會 이놈아 팔대답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워먹었나 버릇없는 녀석입니다

元 會 會 말대답이 아니겠습니까

文 會 會 元會야 (처다른다)

元 會 會 어머니가 만히 집집 할아버지 이왕 나은 말씀이네

三 會 會 잊기 싫여 이놈아 (집행이로 땅을 짚어 呼痛을 한다)

◇ 元會와 文會, 아모말도 못한다

三 會 會 더도 네애미를 달머가 아니고, 그어도 네애비는 禰上차레 갖는 祭禮를 팔어

먹자는 소리는 안했다

三 霞 (한참동안이나 文徽母子를 노려본다)

— 사 이 —

三 霞 집안이 논하리 러니가 뭐일도 다 이러나고나, 아니 너이들이 그대들한

그렇게 식혔지

元 會 아니올시다

三 霞 아니면 어린것들이 셋더께 그런생각어들어 (입을양들고) 음 — 禪上을

맛드는 藥醬을 밧치다니 (悲壯하게) 정말이지 나는 禪下에게산禪上을

뵈올面目까지 없어졌다

괘심한것들 같으니라고

文 鄉 어린것들이 청들의 없어서 그랬나봄니다

三 霞 뒷기한다. 모두가 배잡못애, 때때나 할머노릇하기가 그렇게 쉬운것들이

나

文 御 (고개를숙인다)

元 會 (鄭重히, 鄭重히) 할아버지, 사설의번말은 어머니는 물리는 일입

니다

三 霞 그런 누가아는말이나말야, 네가 식혔니

元 會 아니올시다

三 霞 그런 누가 식혔니

明 媛 (송廓편을 바라보며) おちいさん ばか

元 會 무슨소리냐 버릇없는 년가르네

明 媛 (눈물을 씻는다)

文 鄉 다니 왜들어더니?

明 媛 한세 할머니 촌할아버지께서

文 鄉 막아단을치셨다우

文 鄉 아니 무슨말씀을 잊쥬려네

明 媛 글세 우리들니 祭祀輸存를獻納하고자했드니만

文 明 媛 誰?

明 媛 글세 아버지 祭禮는 다른것으로해도 觀찬치안어우 꼭 諭存를어 하남

文 明 媛 (마루로 올라간다. 椅子에앉아서 印의려하긴다)

元 會 明媛 그옆에는다

文 會 을지마러

文 會 아이고 별아이들도 다 많았다 別안간輸存약이든 왜 꺼집어냈어

元 會 三霞翁 긴집행이를집고 怒色의滿面해서들어온다

元 會 七層 뒤따라들어와 舍廊門앞에는다

元 會 明媛치다보고 다시고개를 파묻고 明媛, 거는방으로뒤여 들러간다

元 會 元會, 딸로내려와서 扶手하고섰다

元 會 文鄉, 엇편을말을 물은다

元 文 會 鄉 그렇나 할아버지 게 아신다면
아시지도 못하시겠지만 흥 아신다고하시드려도 奉是 父母의 마음 이럴테니까

惠 玉 어머니 제 성각에도 그랬습니다

文 御 그럼 惠玉 아, 오늘 슬그머니 와도 편찬라고 그러라

惠 玉 네, 그럼 지금 通知를 해주겠습니다 여관 종왕할게 아닙니다, 갖다 오겠습니다

文 鄉 오네

◇ 惠玉 波場

元 文 會 鄉 (内心으로 걱정을한다)

會 어머니 걱정이 많습쇼

正當하게禮法를 지키는것은 저의 집안에 象風입니다 보람도 우리나라의美觀이을

시다

그렇나 옛던 조그마한 事柄에拘碍가되어서 卽 禮法을爲한禮法은 一種의形

식이될수도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할아버님以上으로禮法을 지키기爲해서

正當한일을이존적도있었습니다 여부해이 동생들에게 禮은 禮固라는소리가

지 들었겠습니까

元 文 會 鄉 그러도 있어튼을 속히는것만 갖해서

會 팬찬려도 그렇습니다 그러

◇ 明辨을겨우고 明媛이는 성의동々의나서 들어온다

惠 玉 山紅언니가

文 鄉 山紅이 그러지말아, 듣성사남다, 들재언니라고 하든지 하지

元 會 어머니 正式禮式안한 오라 범탄더러 들재언니라고 불는는것은 불췌에 어그러
지않습니가.

文 鄉 금방 오금을박는코나

元 會 아니옵시다 어머니 (微笑)

文 鄉 그래 무슨말이 있든? —

惠 玉 내 — 들재성이 오를을 엇더게 알았는지말씀드리키는 罪愆하지만 祭祀泰

례를식혀줍시라고

文 鄉 응 (기특하게성각하나 거북한말은도 들어간다)

惠 玉 自己도 禮度에 버서나 는줄은 알지만 既往이날을알고있는以上에는 當然하게

집안에만들어있었는것이 자식된道理가 아닌것갓해서 破廉恥하고드리는말습니
라고호

文 鄉 참 무던한마음이다 그렇나 나혼자생각도 아니고 — 아범아 녀憲向

에는엇더나

元 會 저는 상관업다고 생각합니다만

文 鄉 그러나 사신분도아니고 도라가신 식아버님을뵈옵는禮가, 그러면은 종와하한

니가있나

文 會 아범님도 종와하실것입니다 父母의마음은다, 똑같은실례니가요

七 星 오늘은 원일이신지 원정일이 되시도록 돕지도 양으시고 그렇게 좋와하시든까

도 안양으시고, 그대로 노만잡고 얹어만계시오

◇ 원송은 원송대로, 文郷은 文郷대로 다른 惠恩의 고개짓들을 한다

七 星 덕 부처님같은세요 입때까지 담뱃도 한며 안피우셨시오 너무 아모말씀

이 안게시니가 무서운생각이 들어가든덥쇼 (退場)

春 甫 (뽕을, 다, 때고 아러스며) 대감마님께서는 해마다 오일이면, 더 遊精을

내신단말야 (뒷채로退場)

立介의소리 열는 불대세은

春 甫의소리 오나

文 郷 (근심스런게) 왜 또 그러시니

元 會 아드님 생각을 하시는게죠

文 郷 그러면 왜 한번도 찾아날아는 안이르들어오시지를 양나

元 會 그것이 왜 아드님을 생각하시는 옛촌사의 마음이사람이다

文 郷 (가벼운 한숨)

元 會 (燈籠) 초롱(은燈) 아래 만다

◇ 惠王登場

元 會 번서 원날이나

惠 五 일이 있어서 좀 나왔시오

春 郷 너는 원일은 宿願아니지

元 明 七 明 文 明 明 文 明 明 明 文 明 文

會 姬 星 媛 御 姬 姬 鄉 媛 匣 媛 鄉 姬 鄉

◇ 明媛姉妹 다시 궁궐거리고편지를쓴다

— 사이 —

◇ 明媛、明媛 둘이 무슨말인지 소근거리다

그리고 서로 흘낏한듯이 고개를갯닥어리고 이러스다 내려온다

어디들가니?

사랑여요

와?

노할아버지께 엿취물말이있어오

엿취보고나야 편지를 계속해 쓸일이생겼어오 그렇치(明媛에게)

그런

무슨말인데

나중에보세오(明媛가큰이승廓으로들어가려한다, 門이잠겼다)

七星아 門 좀 열어

(조심이되서) 아들아, 공연히 꾸중듯는다

괜찬어오 — 七星아

(관음열고내다보며) 외들그려오

원, 외들그려 빗겨(姉妹, 七星을명칭치고말어간다)

해감마님 뵈하시니

이다

— 開幕 —

元 會 (祭床을 이르키다가 안되니까) 여보 이리좀올타서 한편들여주우

元 會 (올나가서 한편들거드러준다)

會 食紙는?

文 다락에 있다 (이러스려고한다)

玉 高만두세오 재가 가지고나오죠 (안방으로들여간다)

玉 甫 마범 歲日같이 빠른게 없읍니다그려 영감마님계서 나가신게 엇그런게

文 일갓사온데 변서 二十년이넘었읍니다그려

文 會 올이 꼭 스물한할씨

◇ 玉 會食紙를 갖다갈고 행주질은진다

◇ 元 會, 香爐, 香盒을본다

會 甫 참, 그랬습디다 그려 셋재서방님 나신대하니가우, 참, 식도하시디다

(주머니로눈물을한면씻는다)

◇ 文 會 哀愁에빠진다

立 角 아버지 (말하는소리) 연는헛더나며세오

會 甫 (알아채고 웃으며) 모나 (文 會를미안스런게치다본다)

立 分 마님, (환류할말이없어서) 洋向補에 불고된과야죠

第四幕 大庁

舞台

第一幕과 같다

거는房 뒷마루에 등근卓床과 椅子 두 개 노힌 것만이 茂한 것이다

○ 三幕부터 約一年뒤 秋夕날

(이날은 春人이出家한 날이다 家族들은 이날로 故春人의 忌日로 設했다

東京선容死한 날이 分明치안흔 까닭이다 이날만은 一家에 愁鬱의

찬다 全家族은 敬虔한 哀悼을 한다 그러나 三霞翁만은 이날은

더한중 舍廊門을 구지맛고 禁雜人하며 杜門不出한다)

第一場 午後

◇ 明姬와 明媛은 뒷마루 卓床앞에 마주앉아서 慶會에게 보내는 慰問文을 쓰고 있다

◇ 玉璽는 문베이를 입고 마루끝에서 서일을 한다

◇ 文靜夫人은 흰옷을 입고 마루위에서 絮壼를 닦는다

◇ 立分母는 부엌안에서 立分이든왔다 갔다하며 밧부다

◇ 春甫는 뜰에서 炬火를 맨다

◇ 元翁는 마루에다 絮床을 버린다 屏風은 처있고 돛자리(花紋席)

는 깔려있고 椅子(神位노시는床)는 서있고, 지금에는 床의 다리를 繫는中

文 惠

郷 玉

○ 두 여자, 합리케 못 필 때

(웃고 찬물하며) はい 御免下さい

(다정고들아 손다) 머리예분딜가루가 허헛라

셋루른 語調로) パカ

幕

明 文 文 文 明 明 文 文
 媛 鄒 鄒 鄒 媛 媛 媛 媛

바라보고 소리없이 웃는다

玉媛, 참다 못해서 웃음이 러지려고 할 때

惠玉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으면 한 손을 저른다 玉媛여자로 참는다

(晩亭을 各申各様으로 枕判위에 그루히셔도 兪形은 안된다. 夢을 시스며)

ムツカシイダナ

(모두 지여 버리며) 惚きまほしきぞ)

ハイ (또 쓴다, 좀 나 혼편이나, 亦是, 맛찬가지다) 예구, 이런 것을 너와

아주 먼들이 보면 껄들웃어 대견다

◇ 두근거, 夢들을 트러막고 엇잘줄을 물는다

一速く お書かたぞ)

ハイ (더, 熟心스럽게 쓴다 어느덧 다시 枕判위의 그루하게 된다,

夢을 시스며)

センセイ ホントニ ムツカシイデス

◇ 玉媛 惠玉, 그여고 웃음이 러졌다

(치다 보고 무한해서 웃는다)

◇ 두근거 더, 웃는다

(急히 漆板의 글씨를 짓는다)

あはま方 失礼ですな

明 文 明 文 明 文 明 文

文 明 文

媛 御 媛 御 媛 御 媛 御

御 媛 御

アノ黒板に書いて 御覽なさい

ハイ (이러나다)

(いろいろに信へど 틀지어그나서) 今朝 今日は 今朝 今朝

ハイ

◇ 文媛 쓴다, 뱃달 / 된다 / 글씨가 안된것을 쓴다, / 틀기로 몇번씩이나

짓고 다시 쓴다

◇ 明媛 / 웃으면서 / 그렇게아나온, 이렇게쓰세요 / 하면서 / 열심히

指導를한다

(거우 / 「今日ハ」 를 / 썼다)

왜 / 이렇게 / 안되니

왜 / 연마안하시 / 저이들모담 / 낮게되신다고 / 하시드뇨

연기 / 으켰아

その次ぎ

”今晩は” / じゃあ

はい

(今후는 / 썼스나 / 晩申 / 잘안된다 / 몇번씩도 / 작구안본다)

(옆에서 / 작구 / 일개인다)

◇ 御媛와 惠子 / 가만 / / 히들어온다

明 文 明

文 明 文 明 文

明 文 明 文 明 文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オ早ウ ヨガイマス

よろしい

ヨウシイ

하, 하, 하, 할머니는 크로시이 허는게 아니예요

ハイ、ソウデスカ

하하 할머니 암만 이래세도요 편지를 쓰게까지 되시려면은 여간 한참이

아니예요

뭐 한참야, 너 두고보라, 열마아니 있으면 담박 너 이들같이된다

おかしいな

オカシイ 가뭐야 버릇없는것같은니

호——

너, 퇴라, 내가 카나로편지만쓰게돼서戰場나간 너의셋재야 버릇한데 편지한다

네이들이 암만, 내 며신씨준다고해도, 내손으로쓴것만하네

(앞날을 눈앞에거리며) 万一、너의 셋재야 버릇한데

꼬볼꾸불 한내글씨를바다보면 오쪽 조화하겠니

本当ですわ

ウソアリマセン ホ——

그럼, 인제는 글씨를 써보세요

文明 文明 文明 文明 文明 文明 文明 文明 文明 文明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郷 媛

새은 — 나라

서은이 아나오 ㅎㅁㅇ ㅎㅁㅇ 에요

ㅎㅁㅇ —

(고개를 갓다 / 하며) ㅎㅁㅇㅎㅁㅇ

ｼﾞﾔﾝｼﾞﾔﾝ

(더, 크게) ㅎㅁㅇㅎㅁㅇ

쉬 — (손을 저으며) (周圍를 둘러본다)

왜 이렇게 앙을쓰니 ㅎㅁㅇㅎㅁㅇ

(나 죽히) ㅎㅁㅇㅎㅁㅇ

ㅎㅁㅇㅎㅁㅇ

이렇게 배호시. 다가 언제 國語편지를 쓰시게 돼요

그러도 되지 될때가 있다

赤祖母 ㅎㅁㅇ

하이

年寄り学生 ㅎㅁㅇ

何ンデスカ.

하 — — —

ㅎㅁㅇㅎㅁㅇ 떠들지말어, 누가 드림은나

第二場 어나날밤

◇ 같은場所

◇ 한편벽에 漆板이 걸터있다 ” (이후에는ほへと ” 가시여있다

◇ 漆板을 向해서 文御夫人, 雜記帳를 펴놓고 앉었다

◇ 옆에 明媛 성긋이 웃고있다

○ 어두운중에 時計치는소리

明

○ 室内는 어둡고 漆板附近만 환——하다

今日は

(따라입는다) 今日は

今晚は

今晚は

さようあら

새은나라

(더, 딱히하게) さようあら

明 文 明 文 明 文 明
媛 御 媛 御 媛 御 媛

明	明
倣	倣 倣

”世上物情을 물고, 반찬한가지도 料理法冊을 한손에 들고 디러다보면서
 해악하고 치마하나를 지려면 열번이상은 꾀쳐드더악한다”

本物は 本當左わ

馬鹿 — (새근) (하며)

”그리 本性이 癡癡하고 암상스러워서 죽하면 읊고 걸핏하면 웃는다)

(冊을 덮으며) あ — (惜し)

叔父之心 馬鹿 — (악을 쓴다)

— 暗 —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應	玉	元	立
姫	媛	姫	媛	姫	媛	姫	玉	姫	會	介

나리 마넌게서 귀엿진지 잠수시러 들어오시라고요 (退場)

음

에구 열는 들어가봐졌군

◇ 元會, 玉姫를 한번 훑겨본다

◇ 玉娥, 마조 설죽해지며 退場

◇ 元會, 임맛을 다신피 退場

(생크아웃이며 따라들어간다)

◇ 明姫姉妹, 거의다름처럼잡하다입히되어서 退場

何忽?

靜かに しほさいよ (사람속에서 例의雜詠를 차져낸다) 此れだよ

早く 読んで御覽ませ

待ちませい (빙겨쳐차즈며) あ、これだ

これが お母之心が 恐る 小説だね

음 (입는다)

ㄱ 그리고 그의妻는 高等教育까지 바든新世性이었으나 亦是 高名人집말로

막 자라났기때문에 虚栄心이얹고ㄱ

お母之心の 悪口だね

お黙りなせ

玉 惠 元 惠 元 惠 元 惠 元 惠 惠 元 惠 元 元 惠 元 惠

娥 玉 會 玉 會 玉 會 玉 會 玉 玉 會 玉 會 玉 會 玉 會

(부루등배전다)

뭐라고 처참이 좀 게서야 쵸

(玉娥에게) 4万예 ——— (마지못해서)

いよいよ せんばに 權幕ばかり はってま

——— 그런데 큰오라버니 그씨가 엇재왔섯서요

事情의 絶絶해져서 이집에 있게해달나고

네, 그럼 엇덕함니까?

그래, 내가 거절을헐다

酷いわ

仕方ないぞ ——— 그런데, 여보 그리고 어, 또 우리셋이 여기서約

束하자 이번일은当介向 秘密로써두자

그렇지만, 그씨가, 事情이 딱하지않어오

딱한것은 우리끼리徐々히 解決하기로하고 ———

왜그런고하니 万一, 이런일이 할아버니 귀외들어간다면 또큰일이날게아니

나 ——— 또 어머님께서 야단을 맞나실게아니

음은말씀에오 兪님 그럼 우리 ———

입을 꼭 닫은고 있네야쵸

◇ 立介 登場

惠 元
五 會

만은 秘密을 지킬 것이고 守秘할 것이고, 그럼 저는 守秘할 것이고, 그것은 다
さうだつてのや

그리고 그 이론대로 秘院을 設치려는 것이, 그 뒤 誰가 守秘 守秘가 맞는데
매우 困難하게 살드구요 誰나 그 守秘 守秘하는 것이 何人 守秘한 守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 守秘 守秘가 守秘 守秘가 맞는데 守秘 守秘하고 안바디요

그리고 앞으로는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는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守秘 守秘로

그 世子の 守秘 守秘에 守秘 守秘해서 一切 秘密을 守秘 守秘합니다

모담 그렇게 된일이니 守秘 守秘하는 守秘 守秘의 守秘 守秘를 守秘 守秘하자마세요

그렇게 오만동안 守秘 守秘를 하십시오면서도 守秘 守秘로 오라버님을 守秘 守秘신단
말예요 (微笑)

누님 부끄러워서 못견디것서요, 守秘 守秘지만 守秘 守秘한 守秘 守秘의 마음이란 호

부끄러움은 아는 모양이군그래

오라버니께서도 守秘 守秘한 守秘 守秘의 마음은 안하시는지여요

오네 잘못했다, 守秘 守秘한 守秘 守秘의 마음은 守秘 守秘한 守秘 守秘의 마음은

(것바하나 웃지는 않는다)

容赦하시요 (元會에게)

은했지만 여간 賢淑하고 品이 높은 판자가 아니었으

며 제 멋대로 된일이냐

그녀는 前의 우리病院에 患者로 들어왔서요, 아 마, 자근음바가 北支

로 떠난뒤 열마안된때 옛든가봐요

그래서 아랫서요, 그런데 저는 그 女子가 妓生노릇을하다가 意中之人

을 만나서 아끼지배고 그 男子가 없었지니가 그 男子를 기대기 싫어서

妓生까지 집어치우고 苦生을하고 있는것만인줄은 알았스나 正작 그 男子가

들재음바라는것은몰랐서요 勿論 그 女子는 제가自己戀人의누워인줄은알고

있었죠

成程

그런데 兄님 — 어느날 病室에서 왓자 하길테 들어가보너가 그의收

養母가와서 ”그멋친녀석때문에 네가저뻘개뻘다

오년아, 너는 사내놈만重하고 에미불상한줄은몰드나” 하면서 막, 야간을히

깃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女子의 正體를 알았서요

별 女子도 다만쿠료

그래, 그날저녁에 내가 謝罪를했다오

그랬드니 그 女子는 돌오혀自己가 謝罪를하면서 옛뻘개뻘지 自己의精誠으

로重중씨가 健全한藝術家가 되어서 다시 辱으로 들어가게하겠으니 이런

玉 嬪

(長椅子에가주저앉으며) 난물나오, 그것처럼 안좋은 김에도 생략을두려웠수
그러도 나는 당신을 잠깐은男權으로 끌었고 지내왔수. 예그. 나같은왕단
전도 없지. (흥긴다.)

주상기 高麗, 在, 女, 亦, 前, 是, 一, 一

◇ 高麗 登場

아니, 전업, 왜 이러수:

(더, 흥긴다.)

큰오라버니, 무슨일이세요

네의 자근오라범의 傑作 小説 讀物 이란다

도산紅이 變 文 입니다. 一

(치다보며) 누님, 지금 정말山紅이가 단겨갔다고

며, (상처의웃으며) 단근, 그건 誤解 吧

나도 지금 들어오다가 앓나왔서요

(多幸하게) 그렇나 한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며)

네는, 엇딴게, 그 친구를야니

별서브러 안담니다

(명민을물나서) 치다, 안본다. 一 一 一

님, 지금나간 그 친구는 틀림없는 자근오라버니의 戀人 입니다. 披, 弄, 弄, 弄

元 玉 元 玉 元 玉 元 玉 元 玉 元 玉 元 玉 元 玉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會 城

정말 그랬소

아모소리도 다, 뒷기 싫어요 ———— 그러니까 고 여호갓튼년의집이 聚岩町

文化住면이구료

그전 엇덜게 아렸소

小說에 있지않어요 ———— 예구 엇저면 이덜게 假面만쓰고 있소

허어 ———— 아죽까지도 小說를밧는군.

여보, 그런데 아니라 그너주는 重술의愛스요, 저금 아이까지배고있구료

이건 또 무슨당치않은소리요, 아니 핑계 謊言가 없어서 동생을꺼러오는

거요 너기여보 아모리 빈말이라도 自己가 종화하는 여호년을 게수

로 면할어애 올란말씀요

(끝이나서) 馬鹿

本當に 善は 馬鹿だつちわ

남의말은, 다, 뒷기도前에 曲解만하면 엇덜하는거야

그럼말해보요

그런데, 重술가 그너구와갓치살다가 半年前에 또 어디론지 가버렸다는구

료 그래서 그너주는 重술를 기러리가爲해서 校生까지 그만두고

(귀를막으며) 예그 뒷기 싫어, 내가 한두살씩은 여린연졸아나

그런게 아니려도그래

玉	元	玉	元	玉	元	玉	元	玉	元	山
媛	會	媛	會	媛	會	媛	會	媛	會	紅

그럼失禮합니다. (나가며) 저는 재함으로 제명을 직히겠습니다.

◇ 들어오는玉媛와 마조친다. 山紅. 감간을 화를 하고는 고경박이 되고. (玉媛의 玉媛)

(돈을 지갑에다 넣고 주머니속의 玉媛다)

(무섭게 흥분이됐다) 온잘스닌구료

못난소라마려

지금나간美인의 山紅이죠

엇엇게아렸소?

이러고도 山說이 거짓말이라고할테요

그런데, 엇엇게돼신 돈까지 가질너단기게됐소

인젠 아조 醫藥의이로

구료

떠들지말어

(더 크게) 貂被한줄은 아시나보구료

쓸데없는 誤解는 그만두고 내말이나 좀들어어

무슨말이

이것은 당분간 秘密은, 나혼자알고있으려고했스나

이왕들겜스나 할수없다는말씀이

元 山 元 山 元 山 元 山 元 山 元
 會 紅 會 紅 會 紅 會 紅 會 紅 會

그래 지금도 重會와 갖치었던말로

北支로간다고 떠나간지도 半年이 넘었습니다

(혼잣말로) 낮부터서 같으니라고

그런데 나를차려온 條件은 뭐요

請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請인줄은 몰는지만 나중에 當面맞나거든 直接해보시오 北支는 糞

도 없지만 重會라는동성도없소, 나는 當心같은

坡步과는말씀하기가 싫다는말씀이십니까? (語調가哀調가되나 強烈해

진다) 저는重會식 때문에 모든것을 맞쳐왔읍니다 그리고 (우에는

그분을爲해서 坡籍에서 몸까지 빼고있읍니다 그리고 오죽 그분의

成刃을하고 돌아오기만기대리며 더군다나 벗속의어린것이 팔거가기만기대

리며

그렇나 제게는 말할수없는 큰苦痛이있읍니다

(눈을감고 팔짱을건다

제게는 돈과慾心만이있는 収養冊가 있읍니다 날마다 애단을잡니다

보담도 齷齪까지합니다

(입을배죽이 내민다

山 元 山 元 山 元 山 元 山 春 山 元 山 春
 紅 會 紅 會 紅 會 紅 會 會 紅 甫 紅 會 紅 甫

들어오셔요

네 — 失禮합니다

(앉인대로 禮)

(春甫에게) 未妥합니다

수위에요, 이어튼이 저의손 社長나리십니다

(리를앞으로 갖거허오며) 처음뵙습니다

저는 崔山紅이올시다

에 — 崔山紅이

◇ 春甫、歎訝한눈으로 한번치다보고退場

이렇게 手地에 차겨와서 未妥합니다

무슨일로 오셨소

(勇氣를내여서) 저는 兪會씨의 안해올시다

에스? (놀란다)

좀 失禮합니다 (疲勞한듯이椅子에가 앉는다)

(매우 不快한氣色이다) 내 동생에게는 안해가 없소

그러신말씀은 반드시한번쯤은 들으려니하고 왔습니다 — 그러나

手裏에있어서는 비록 正式은 아니드래도三年동안이나 夫婦生活을해왔습
 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혼잣말이야합니다

元	春	元	春	元	春	元	春	元	春	元	春
會	浦	會	浦	會	浦	會	浦	會	浦	會	浦

◇ (마조이러스며) 애쓰셨습니다
그런 순복히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 河原退場

(들어온다) 나림 손님 오셨습니다 (빙그레 웃는다) 들어오시라고 해도
팬게 없게습조

누군데 ?

안손님의 신덱쇼

안손님 ?

네 — 꾸쭙뵈와야겠다고요 평점은 본인덱쇼 엇덕해요 계시다고해봐

기는했는덱쇼

들어오라고해, 누굴가

네 — (退場)

(이상스런히 생각한다) 헤물앞에 점잔하게 앓는다)

(담배를내어피고 담뱃값은 책상위에 그머둔다)

◇ 春浦, 佳山山紅을 案内해가지고 들어온다 肉感的으로성경스나 먹.

賢淑해보인다

몸차림 / 에식 披生티가 나타난다

河	元	河	元	河	元	河	元	河	元	河	元
原	會	原	會	原	會	原	會	原	會	原	會
그럼	아	그럼	너	그럼	무	그럼	나	그럼	이	그럼	아
困하실런데	너무나	困하실런데	이	困하실런데	나	困하실런데	이	困하실런데	이	困하실런데	너
오늘은	이	오늘은	이	오늘은	이	오늘은	이	오늘은	이	오늘은	이
원적편으로	이	원적편으로	이	원적편으로	이	원적편으로	이	원적편으로	이	원적편으로	이
가서	너	가서	너	가서	너	가서	너	가서	너	가서	너
다	너	다	너	다	너	다	너	다	너	다	너
하십니다	너	하십니다	너	하십니다	너	하십니다	너	하십니다	너	하십니다	너
(이러스면)	너	(이러스면)	너	(이러스면)	너	(이러스면)	너	(이러스면)	너	(이러스면)	너
있	너	있	너	있	너	있	너	있	너	있	너

河原

元會

心魂을 本直하게 나타내면 不遇함이 不遇함도 不遇함을
 이 弱해질 때에도 弱함을 弱함으로 激勵하고 奮發
 함을 定임니다. 捨身報義라 한 것은 義를 義로 義를 義로
 善意가 말소구의 어려움이, 仁을 仁으로 仁을 仁으로 殺
 身成仁과 같은 精神입니다. 오병할로 하면 感報報國입니다.
 내가 金融業을 전히치고 造船業으로 轉換한 것도 오병이 意
 에서 나온 것이입니다. 같은 商戰이라도 國家에서 利權한 것
 벗어 말하면 戰爭을 이기기를 해서 먼저 必要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實業家들이 가진 捨身報義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至當한 말씀입니다.

하니 支配人도 이같은 精神 밑에서 새로 始作한 우리들의
 事業에 獻身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社會의 全從業
 員도 다 이같은 精神 밑에서 오병이 인도된 事業입니다.
 第一次 歐洲大戰 때 英國의 옛던 政治家는, 이번 우리 英國의
 勝利는 銃알 한 방보다도 보리 한 알에 있었다고 했답니다.
 이같은 戰爭과 增産은 重要한 關係가 있습니다.
 네 잘알아 두겠습니다. 鎔心 하겠습니다.

努力 하겠습니다

元 河 元 河 元 河 元 河 元 河
 會 原 會 原 會 原 會 原 會 原

밖무신 모양입니다. 그러

아입니다. 저절로 밧겨 달아드립니다.

네 (치다보며 感歎을 한다) 잠썬는 데요

저의 할아버님이 쓰신 겁니다.

네 그렇세요. 여어! 정말로 名筆입니다. 엇적면 年滿하신

어른께서 저렇게 筆敎가 뛰어나 하십니까

저건 저의 할아버님의 精神입니다. (順序, 라는懸板도가 뜨키며)

저것도 할아버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거 精神 때문에 저의 先親께서 容死도 하시고 재동생이

똥수도 밧고 또 나도 이렇게 이번 술잔을 改造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寔은 잘알지 못하던서)

偉大하신 精神이올시다. (外面치레에 지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집의 精神입니다. (어는사이엔지 平時의 가졌든

混着은 인정었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며) 그렇시겠읍니다

(捨身就義를 가르키며) 내가 저것을 건졌도 요사히의 나의

春 雨

별이... 다들... 雨月... 雨...

◇ 立分 河原를 案内해가지고 登場

◇ 春雨 默禮

들어오세요

〔書齋기방을들었다眼鏡을썼다〕失禮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지금 온노시는 길이십니까!

네. 이번 車에 네렸습니다. 순천에 電話를 거니가

定으로 나가셋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너무 受聘을 하셨습니다

千萬의 말씀은 다 하십니다

◇ 立分 退場

자 앉으자지

네 (椅子에 앉는다)

나임. 이 着板은 벗덕 할가요

안에 드러다 두지. 나 조영에 차근서 방님 房에다 걸겠네

主는 안개신 房에다가요

참전말고

네 (나가며 번쩍 들고 읽는다) 誠於中하고... 誠於中이면

形於外라 (浪 場)

元	春	元	春	元	春	元	春	元	春	立	元	立
會	甫	會	甫	會	甫	會	甫	會	甫	分	會	分

나리, 支配人께서 차저오셨읍니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네 (退場)

저쪽으리 좀. 더. 으나 킵쇼

이렇게 (으리다)

에그 너무 으나 갓습니다

이렇게 (조머리다)

네. 똑. 땃습니다. 참, 잘쓰싯습니다

(결상에서 내려서. 「스레파, 를 신오며」 잘쓰시고 말고.

어디로보나 八十된 走人의 筆力 같은가. 조곰도 꾸부러진 데도 없이

아 조劃이 살었지

참. 대감마님께서는 글씨, 쓰실 때에는 더. 청, 해지시니가요.

(고개지스으리며) 똑, 산. | 갓 갓습니다. 그려

한번. 읽어보게

(처음우를 몰나서) 무슨 身이라

버릴사

捨身就義로다

文章. 일세. 그려

第三幕 새舍廊

總舞台 第二幕과가름

—— 第一場 夕陽 ——

○ 二幕으로브러一年뒤 初秋

◇ 元會 결상위에올라나서서 壁에걸닌, 誠於中이며 誠於外라
懸板을 핀다

◇ 春甫 옆에서서 새론懸板을들고서다

—— 開 幕 ——

元 會 「핀여준다」

春 甫 「바드며」(詠詩調로) 誠於中하고 形於外라

元 會 「하고」가아니라, 이면, 요

春 甫 네, 그렇습니가 (다시크게) 誠於中이면 形於外라 허

元 會 그것 인주슈

春 甫 네 「새것을준다」

元 會 (못에다 건다) (捨身就義)라는額書다

◇ 立分登場

文 卿 (근골만씻는다)

元 會 이겼도 결코 慶會의 請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님니다

다만 어머니의 뜻을 받드려 드리려 한다

文 卿 안다 (橘子에 주저않아 열손으로 가리고 쳐진다)

어머니 저는 이제까지 남의 請을 들어본적, 아 없읍니다

(허공을 쳐다본다)

文 卿 (가만히 어머니로 쳐다본다).....

幕

다만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온시다

고맙다 (그동안은 쓰스던 서도徽笑을 한다) 고맙다

(退場) 마님 대감 마님께서 藥酒를 또 내오시랍니다

도들은 웬일이십니까 단후자께 주전 자석이나 잡는 수서계

러. 언뜻 보려고 하자 아셨게 따듯하게 잘 되어 주시사오소서

내다 드리게

네

그런데 할멈은 일도 듣어가지서 病院아가씨 좀 나오시라고

내 (가려고 할때)

그리고 할멈 셋째서 방님게도 좀 나오시라고 꼭

내 (退場)

어머니 어머니 흠을 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젠 아직 어머니께서

모르시고 계시니 흠이 온시다. 저는 慶喜에게 韓王이 보답도 더언컨 請

을 들었습니다. 그 권한 나는 拒絶했습니다

그전. 또 무슨 請인데

何如向 들어주겠습니까. 그 녀석의 마음은 조항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어머님의 마음을 조항하게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답도 그보다 이온시다

7

元
순

文 元
순

文 元
순

文 元 文 元 文
순 순 순 순 순

안된다 글씨는 지워질는지 몰라도 評判은 지워지, 안을 거다

元순야 韓王의 생각은 그만두고 나를 爲해서 이번 請은 들어주지 못하겠니

안들여줘도 할수 없다 같은 — 元순야 나 갖든 못난 예미는 없다

그렇나 아모리 못난 예미라도 예미의 마음만은 있는 모양이다

萬一 이번이 네가 國魂을 세코 나간다면 夫一 내가 부끄러워서 못살겠다

公其事業에 密附한다 했다가 그만두고 더군다나 그것은 勇妹向에 不知

에서 勇妹向이라 하면 — 元순야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勇妹向은 더군

다. 자신들의 예미노릇은 하기가 싫다

정든지 못하겠스면 그만둬라 공면허 마음만 괴롭 해졌고나

(우머니 한. 그걸이나 微頭微尾 쫓겨한 목소리다.)

— 사 이 —

어머니 어머니 말슴하며 너 하겠어가

(너무 좋아서 울땀이 된다.) 어머니

元순야 그만두라 겁이라 하고 시포다 (웃고 름차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어머니 이번에는 내 눈가 돈은은 社會事業 때문도 아니요 勇妹向의 때면도 아니니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會	卿	會	卿	會	卿	會	卿	會	卿	會	卿

너까지 그렇면, 내가 —

왜 그런 말씀은 하십니까 아모영씨 마십쇼

저도 거머로 썩을일이 있으니까요

그런즉은 나도 안다 마는 — 그런데 애

네

내講 하나 틀어주련 !?

네, 말씀 하세요

내생각에도 불후왕이가 좀輕率해^ㅅ다 만은

마모리 제생각에 중다고 하는일이라도 잊사람과 相議도 아니하고

제맘대로 — 그애는 모든것이 다 제맘대로 되는줄 아는애니까 —

나도 그게 무슨 짓이냐고했다

지내간 이약이는 고만 두십쇼 푸연히 그런것때문에까지

마음을 傷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마음이 傷하니 — 그런데 애 그애한 짓은 좀 靛심한르

는지 몰나도 亦是 여러사람 앞해서 해논일이니 뒤 주체가 靛

靛가 아니야

取消만하면 고만입니다

사 이

慶 元
승 승

普通私利와私腹만 아는 實業家와는 달리지니가 받드시 너의 아버지 일에는
깊은 同情이 계시리라 고—

(또 입이 뻐 주해진다) . . .
고만 두심쇼 (역재로 激化된 感情을 自制하고나간다)

◇ 門설주에서 들어오는 文卿夫人과 마주친다

文卿 慶승에게 尋常치 않은 態度에 잠간 놀란다

○ 慶승 그대로 返場

文 壽

(그를 감고 앉은 元승를 보고 무슨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가) 그렇나 유순한 목소리로 元승야 ! !

元 壽

네 (私色을 지은다)

文 卿

慶승가 왜 저렇게 됐니 ?

元 壽

아니올시다 아모 일도 없었습니다

文 卿

元노릇하기를 동생가치 해야 한다

元 壽

네

文 卿

동생들이 좀 철없는 짓을 하더라도

元 壽

네

元 會

契約대로 서로 施行 하자고 했다

慶 會

네? 그러면 執行을 하시겠다고?

元 會

너는 그런것을 참견할 사람이 못된다.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말한

와 갖치 너는 참으로 온몸이 아니다

慶 會

그렇나 큰님님 그분은 저와 가장 친한 동무의 아들이니

正直한 事業家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하시는 事業은

階級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事業의 하나입니다. 國家의

事業을協力하신다는 커다란 意味에서 이번 한번만 忍耐를

주십시오. 제 請이 온시다

元 會

비할때문에 내 事業의 秩序는 紊亂 紊亂하기는 싫다

慶 會

모님! 모스름을 나라에 바치고 마즈마르므로 집안은 편하게

여 어린 동생의 請이 온시다

元 會

편히나. (그대일감입니다)

慶 會

(후편이 되어서 이러한다. 그렇나 매우 沉着한 言辭이다.) 모님

元 會

(그대일감입니다)

慶 會

자근님님의 小說속에도 一理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元 會

(상을 찜그린다)

慶 會

元님 저는 제 등무한례 드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큰님님께서는

72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慶	元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고개를 숙이고 退場)

저런 못난 것 봤나 (따라간다)

모님 인제야 제 宿願이 成就됐습니다 모든 것이 모님이나 어머니나

누님이나 모두들 건뎌주신 덕택이 온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더 한층 努力을 해야 한다

하겠습니까 모님이나 누님에게도 저, 앞은 만큼 — 보담도

家門에 辱되지 않을 힘을 쓰겠습니다 奮發中 竭 力 하겠습니다

有難

셋재 아버지 인제 저이들도 學校에 가서 뵈내게 됐어요

わんしん いはるわ

까 볼지들 말어요

큰모님, 작은모님이 집을 나가신 原因이 어디있든 시간에 지금 實現

이 자리에 안게서 계된 것은 좀 섭, 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勿論 거기엔 큰모님, 큰모님의 主張이 지었고

작은모님은 작은모님대로의 主見이 세게지만은 —

오늘은 어리 그런 열이 구 말기로 하자

그럼 아모 말도 안하겠습니까

— 사이 —

王 慶 麓 元 明

禧 會 王 會 媛

歩並揃へて 歩いてゐる
とつとつとく 歩いてゐる

兵隊さんは きれした。

兵隊さんは 大すまた

◇ 明媛도 따라붙는다

◇ 어너름엔지 호수가 앞방에서 되려다 본다

◇ 慶王, 玉媛를 잊고 듣고 오다가 이걸 보고 微笑을 한다

아주까지도 玉媛의 발끝에는 부리는기가 남았다

◇ 노래를 갖내고 慶王에게도 敬禮

◇ 慶王 答禮

◇ 春用 먼저 크게 웃는다

◇ 一同 웃는다

◇ 明媛, 短杖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元王에게 禮) 스텝키 有難う

(微笑)

お芽出度うございます

姉さん 有難う

お芽出度うございます

(二重모 웃어)

◇ 慶會 國防服입은 健壯한 青年

(두 姉妹에 跪어서 登場) 春甫도 빙글빙글 웃으며 따라 들어 오다가

門 밖 露臺에 서다

才芽出度

有難度의 御座입니다

しかり야 「ア 呉れよ

ハイ

国の為 家の為

ハイ

お叔父さん 立派な お手柄を 建て、ねえ——

有難度 「 岬度 叔父さんは 立派な 働きをして 見えますから

(벌안간 氣着姿勢 挙手 敬礼)

(웃으며 挙手 答禮)

(門 밖에 있는 元會의 短杖을 잡아서 銳같이 미끄

室內로 行進) 그리고 童謡를 부른다

◇ 元會 椅子에 앉는다

眞落さん

眞落さん

明 元 明 明 春 明 元 春 明 春 明 明 慶
 姫 会 姫 姫 甫 姫 会 甫 姫 会 会 会 会
 慶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何?

やかましい

お父さんごめん 赤さい

おい、叔父さん 兵隊さんには、うたがよ

お、そう、あ、嬉し

万歳 (손을 든다)

◇ 春, 甫 登場 (안에서)

나름 셋째 서방님도 영이 오셨습니까

지금 큰사랑에 게심니다

응.

셋째 아버지 틀어 오겠서

兵隊さんには、うたがよ

わかっただよ (듣고 쓴다) 甫ちゃん 往ッマ 見ませ

ハイ

◇ 姉妹 다름 박질 退場

(따라 나가면) 오이치니 < (退場)

万歳 - 오目出度 ござ입니다

有難う

明 明 明
媛 媛 媛

明 元 明
媛 媛 媛

元 元 元
媛 媛 媛

元 元 元
媛 媛 媛

元 元 元
媛 媛 媛

生 意 短
せうでもホシよ

才父ちゃん 小説を讀んだら 皆 短意でやうにされるのり
다가 오라고 하시고 싶을나. 다음박걸질 오셔서요

글세 아버지 德壽宮에서 어머니 등우들을 만나는데요 그 등우 아주
머니가 무슨 雜誌「」지 어머니를 주고 읽어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冊을 다 읽고 나드니 별안간 짜 음뜻이 성이나 세서 우리들 더러만 할
다가 오라고 하시고 싶을나. 다음박걸질 오셔서요

그래

어머! 들어 오셔서요

◇ 明媛 明媛 下手편에서 露場

任方のホシヤッだホ

누가 알어요 (안으로 露場) (上手)

애 들은 어딴로 갖서?

(나가고 한다)

말말이 없으니가 날 잡아 잡수 구로 나도 나대로 생각이 있어요

꺼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어린애들은 알어요

못난 소리말어, 小説과 新聞記事가 갖든 술알아
그럼 이小説이 모두가 우리 집안 액인데 山紅이 액이만 거주만으로
이 것은 小説도 아니고 후뫼도 아냐

GG

王	元	王	元	王	元	王	元	王	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會

도 자기근과 자기집안일을 모달로 하는 법이 없다 있었어

되기 싫어

왜 이렇게 야단이세요 그리고 뭐, 별다른 구조도 모른다는 암암조언이라니.

(목소리만)

그까진것을 한다면 말해

그러나 이 소설에는 훌륭한 것도 있었어

眞實하다니

다 읽으셨다면서 이렇게 시김야를 띄우

良心에 기쁨도 없으세요

良心의 기쁨이라니?

나도 인제는 다 알았어요 거드문만 잠깐은 재를 흘려면서 속으로 학생을

끼지하고 있는것을

학생?

小説에 분명히 써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애와 풍자의 애서서 풍화하는 남

편의 즉 당시의 心理描寫까지 써여 있자 않았어요 인제라도 나한테 시침이

를 떨어요 그렇게 내가 보기싫은 거든 조차라도 보내고 山紅이던

을 데려다 차시구로

山紅이는 누구야

小説에 있지 않았어요

文	元	文	立	文	立	元	文	元	文	元	文	元
卿	會	卿	分	卿	分	會	卿	會	卿	會	卿	會

사 이

그런데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한 갑바하신께 예오
 깃바하실 거다

그런데 이렇케 어머니께서는 슬슬 하신말과 같은 하신말을 하신다 하신다
 그것에 내절문이 쓰인다 하보하네오 (한지언어구법)

그런데 어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이러라 저러라 하여도 한사정만
 그 어론은 원체 그런 어른야 아니치나

그런데 말씀이조 翁代長 困長이니 또 영의대도왔는 자 翁代長 困長이니
 영감도 오시고 하셔서 원로. 임에 참된 어머니 翁代長 困長이니
 디러도 노만 영감과 임을 꼭 담으시고 게서오 제가 翁代長 困長이니
 한지 보나스스니다

옛날 초사 이시라 다른사람들도 그럭케 알래지
 그야 그럭치만요

(登場) 마님, 대감마님께서 藥酒床 내오시라고요
 음 「가려고한다」

(退場)

(나가다가 돌아스며) 元會야 그랜드 뉘이 저야 한다
 네에 그-

황후의가 별루드니. 허것드구나

團 長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凶賊一隊의 구두는 露臺에서 커가고 愛國熱이 높
아지는 이때 宅 같은 名門에서 이러한 榮譽의 志願兵이 나왔다는 것은
커다란 示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事實을 말하면 內閣이나 높은 官位이나 많은 上流家庭에서
는 그 裕足한 生活에서 나온 一種의 認識不足으로 그 子弟를 내놓으려는
은 避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그렇나 이번 倭寇의 壯舉로 말미암아 在末
의 不足이 깨트려졌다고 봐도 過言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들리는 倭寇 致賀를 해주셔도 모자라 보겠습니다

수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卽論 當否의 自覺에도 있지만 보담도 伯氏長되신
社長の 드거운 精誠에서 나온 열매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무도 외람스럽습니다

그리고 뒷보담도 祖父長게 敬意를 표합니다. 그런 年滿하신 老스게 翁서
더욱히 어 好 語 褒가 될는지 모른게 좋습니다. 다만 — 조금 말슴하자
면 매우 頑固하시다면 頑固하신 老人 게 翁소서 선, 허 子孫을 내놓으
셨다는 것은 모쪼록 感激할 뿐입니다

◇ 立身의 飲料水가 다 닦고 나간다, 露臺위에 그냥 서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大部分이 兵丁이라 하면 죽는 것이 다. 자식을 그렇지
케 切이기는 심하다 하는 좁은 생각들로서 躊躇들을 하고 있는 現狀이
운데 이런 중에서도 더욱이 八十이 되신 翁스날 老스므로써 子孫을

5년

總	元	總	團	元	團	元	總	元	團	總	元
代	會	代	長	會	長	會	代	會	長	代	會

伺ひ致しますから。は。さよう。か。 (끄는다)

◇ 春甫의 案内로 總代 齋言防團長 登場

어서들 오십시오

얼마나 깃브십니까?

致賀합니다

모두 여려분께서 건럼해주신 덕택입니다

千萬에요

자, 지금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春甫 退場

◇ 三人 昇壇

저도 지금 뭘장께서 電話로 通知를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딱 꼼꼼해서

말하고 할말삼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꽃씨같은신, 高等教育까지 받든 秀才가

自進해서 志願兵이 됐다는 事實에 먼저 고개가 숙으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리의 總代로서 無上の 光榮을 축하합니다. 보담도

원町內를 代表해서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札) ——

고맙습니다. (答禮)

그리고 뒷보담도 이번 꽃씨의 合格은 우리 半島 銃後의 커다란 鎗聲이

元 會

元 會

元 會

春 甫

元 會

春 甫

元 會

元 會

그렇나 지금 비오니까 亦是 저의 識識이 不足 했습니까 그런
을 재워다가 道心이다 이 도우 받기 設습니까

나도 나다

저도 저예요 (본연히 退場)

(雜詠를 꺼져버린다)

◇ 春 甫 退 場

나리— (종화하며) 글세 이것 좀 보쇼 設 재서 學堂의 夫子 也로 明白히

셋답니다 지금 統制하고 勸學 團長이라고 雜詠를 하시러 來고 道心을 設습니까

을 영오지라 (雜詠를 設습니까)

음 (인사한다)

(元 會의 退場) 우리 設마서 芳名의 在 隊さん이 되신다 呀—

(退 場)

(元 會의 退場) 雜詠를 設습니까 設습니까 設습니까 (退 場)

○ 雜 詠 退 場

(元 會의 退場) 雜詠를 設습니까 設습니까 設습니까 (退 場)

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は この前はどうも 失礼致しました は さうですが

有難うございます いせ こしらへん は 皆林のお蔭林で 設습니까

これはどうも わざわ お禮話まで 頂いては さうですが 設습니까 後話お

蕙 元 蕙 元 蕙 元 蕙 元
 ㅍ ㅅ ㅍ ㅅ ㅍ ㅅ ㅍ ㅅ

내게도 生活의 慰汗, 彷徨, 이 있다. 아즈카. 그런 일에는

テサバル 할 때가 아니다

(갑시 흥분이 된다) 이왕이면 돈이 약가워서 못내 늦겠다고 露骨의 露骨으로 거
 절은 해 주십시오

돈이 약가워서 ! ! !

社論도 모르고 國家도 모르고 오즈카 집안으로 옮긴다는 美名 밑에서
 守錢奴가 됐다 는 말이냐 ?

그렇습니다

馬 鹿

(더 強烈하게) 들재 오라버니의 눈이 또 바르셨습니다. 큰 오라버니 저도
 이 雜誌 (雜誌를 집는다) 예 난, 兄弟, 라는 小説을 이리 썼습니다. 젊은
 頑固요 個人主義였고 守錢奴인 青年實業家가 兪날 兪날 할 아버지以上으로
 등생이 되려면 지그는 느리 있다. 이 건 말 할 것도 없이 들재 음바가 큰 오라버니를
 모멸해서 쓰신 小説입니다. 그렇나 저는 들재 음바의 觀察이 너무나 皮相의 이
 요. 觀念의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보기도 小説家로서, 보기도, 이 正確치가 못
 하다. 兪지버친 浪漫, 보기도 一種의 虛無의 각거는 不健全한 思想이 이러한
 病的인 柳喻的인 小説을 낳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혀 큰
 오라버니 편에 서 있습니다. 空想과 柳喻와 兪氣力한 들재 음바 보다는,

憲 元 憲 元 憲 元 憲 元 憲 元 憲 元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연은 얼마나 깃뚝나가?

그럼 그런줄아세요 아마 敎日 안으로 所長이나 理事中에서 인사를 올릴것입니다
나다 ㅂㅂ부신데 래니 길게 말씀을 했습시다그려 (이러스니다)

잠깐만 앉어라

네 (앉는다)

本大의 意思도 두지 않고 對面대로 決定을해도 조라고 생각하네네네

그렇게 먼저 謝罪를 하지 않았어요

謝罪가 尙題가 아니라 五千元의 尙題야

왜 五千元이 없으셔서 하시는말씀이 세요

없어서하는 말이야냐

그럼 社倉를爲해서 더욱히 鎭後의 厚生을爲해서 그만한 돈도

못 내놔켓다는 말씀예요

악가워서 안내놔켓다는것보다 내놔치않어도 觀찬은 데에는 안내놔도

종지 앞으냐 말이다

무선 말씀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읍니다 (이러스니다)

버릇없는 소리좀마라

그렇시다면?

내가 한일은 나는 몰는다는말이다

큰오라버니 (원망스러우듯이)

元 憲 (그 여교 일종의 배근(배근)이다)
元 憲 큰오라버니 잘했조 그런한(功業)積(積)閤(閤)에 그만한 命(命)附(附)증(증)은 應(應)당(當)하고도 命(命)
元 憲 命(命)의 命(命)

元 憲 命(命)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스니
元 憲 호 큰오라버니 깨서도 돈은 큰오라버니의 내 놓을게 아나오
元 憲 내 놓을게 보

元 憲 命(命)論(論)이시조 그런데 참 큰오라버니 제가 그 卽(卽)席(席)에서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큰오라버니 命(命)字(字)까지 써 넣서요 잘했조 귀중(貴)하니 하지조 命(命)論(論) 저도 큰오라
元 憲 버림 말씀은 안 듣고 제 맘대로 써 놓은 거고 잘 못인(罪)인 줄 알 어지 만

元 憲 命(命)그럼나 그 목적이 훌륭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은 드리 드 라도 옳(옳)다
元 憲 참 잘했다 내가 먼저 스로 그런 功(功)業(業)에 協(協)力(力)을 못 하고 너를 通(通)해서 하게
元 憲 돼서 도록혀 붓그럽다 참 잘했다 하나 면서 命(命)附(附)命(命)簿(簿)을 해주 시려니 했스니
元 憲 가요 그럼 큰오라버니

元 憲 (命(命)附(附)命(命)簿(簿)이다 보니까)
元 憲 (禮(禮)祿(祿)을 贈(贈)하 자고 고 마조 치다 보니까 元(元)壽(壽)의 心(心)境(境)을 淸(淸)淨(淨)한다 그럼나 自(自)己(己)의 知(知)性(性)은
元 憲 더 強(強)화(化)하게 된다 徹(徹)矣(矣)를 뒤우며)

元 憲 命(命)그렇게 많은 命(命)額(額)도 아입니다 大(大)概(概) 五(五)十(十)兩(兩)까라 나가요
元 憲 (命(命)의 命(命)변(變)적(적)한 다)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元 憲 命(命)그럼지만 단 돈 몇 수에 無(無)數(數)한 가난한 思(思)慮(慮)者(者)들이 命(命)附(附)命(命)簿(簿)을 命(命)附(附)命(命)簿(簿)에다가

◇ 演壇登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양이다. 한양밖을 향해서 手巾으로

만수 있는 것이다.

只 수

うら (雜談稱을 띄기바라한다)

(도교서조공은 아니다. 그렇다. 못본체한다.)

(앞의면) 이놈은 안나가섯슴이다. 그러

그러

지금 밖부시지 않으니시조

바본것보다 머릿속이 復雜해서 이얍이 할경황은 없었다

(생각이오이며) 마모리 경황이 없으니시드래도 제말씀은 잠깐 들어주세요

겠는데요

무슨 얘인지 얼른하고 나가거라

예그 오라버니께서 — (포폰은한다. 말소리가 분명 — 한다) 오라버니

제請하다 들어주세요

뭐냐?

勿論 들어 주실 줄은 압니다만

들어 봐야 알지

들여 주실만한 能기도 계시지만, 그런 말씀은 내 이질한 말 —

常識도 있잖다는 말이냐!?

元 王 元 明 明 元 明 明 明 明 元 王 元
 會 禧 會 媛 姬 會 媛 姬 媛 姬 會 禧 會

◇ 三田女 나가려고 할 때

열 걸음 들어와 (亦是 치나보지 않는다)

여련히 —

(치다보며) 참 明姬야 노할아버님게 갔다 오겠습니다고 말씀엿켰니?

네, 그런데 아버지 초할아버지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이 상만

짱그리시고 고개만 한번 꺾던 하시겠지

흥 그래도 나한테는 '오냐' 열 걸음 갔다 오너라" 그레셋다나

あふたは 偉い
 勿論 (생각을 짓는다)

할머니게도?

네 (點頭)

당신도?

내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 줄 아세요, 가자, (소리를 짚는다)

◇ 三田女 退場

(書類를 서랍속에 넣고 雜誌를 꺼낸다. 몇 장 넘겨보고 책상 위 에다, 락 내 던진다. 입살을 내민다. 못맛당 할 때면 생기는 癖이다.)

(雜誌에는 出家한 도생, 龍승가 元승 등을 포털해서 쓴 小說 이 있다. 論, 元승을 椰諭하고 痛罵한 諷刺 小說이다.)

明 明 王 明 明 王 元 王 元 王 元 明
媛 媛 禧 媛 媛 禧 會 禧 會 禧 會 媛

아버지 가세요

うう、はい、

여보·순채일도 좋하지만 각금 家庭園寮도 좀 해야죠

당신이 내모까지 맞러가지고 가서 園寮을 하고오시오

그런말씀이 어디있어요

才父さん 酷いですわ

(모자를 쓴 청한나)

다른아들은 아버지한테서요 단가지 않나 — 이견위세요 똑 蔽敎에 든손님

공임님마다 散步를 데리고

모양으로 — 평생가야 아이들工夫하는것을 데려다보나 명생이 에편네나

마조았어 이야이한마디를하나

엇쩌면 그렇게 작구 할아버지만 달머가세요

(잠간치다보고 다시書類를보살핀다)

애들(가자

總 壽 宮 ?

그때때만 작구가 — 어머니 退溪院 갑시다

아모네도나 가자구나

才父さん 往つてまゐります

元 丑 元 丑 明 明 明
 會 禧 會 禧 媛 姬 媛

明 元 明 元 明 元 明 元 明
 媛 會 媛 會 媛 會 媛 會 媛

너이들이나 갖다와

원래 저번에 約束했지, 갖치 데리고 간다고

언제 오들로 約束을 했나 언젠든지 등나는 날이면 갖치가도 좋다고 했지

오들은 오도 날인데

아버지한테는 孝田도 없었어 (거러안져서 다른 耨類를 디려다 본다)

(상은 찢고 그리며) いやらしいね 才父さんは

.....
 어머니도 오들에는 아버지가 갖치가 실줄 아는데

仕方がないね

いや (등々해진다)

◇ 明媛와 王禧 登場 明媛、明媛과 같은 輕裝이다 王禧 커다란 손가방

을 들었나 역시 敬奉가는 차림 < 이다

어머니 아버지 또 안가신데

どうして

いそがしいって

안가시겠어요

홀자 갖다 오

(상은 찢고 그리며) 암만 밧버도 이런 日曜日 날에는 좀
 (耨類만 디려다 본다)

明 元 明 元 新 元 新 元 新 元 新 元
媛 會 媛 會 井 會 井 會 井 會 井 會

◇ 立分 장반에 淸涼飲料를 두공부 배다가 레분위에는다. 두사랑앞에는다.

순히는다.

(마신다. 한손으로도마시라고뿔한다)

고맙습니다 (조공마시고는다)

立分아 이손님이신단다. 帽子가다되려라

내 「帽子, 파나마」를가다준다. 短杖하고

(바드나 어이가없어진다)

◇ 立分 札하고 退場

조공 받습니다

(激情이되나 나준목소리다, 絶望과纏縷의한데어렸다) 감니다 너구나 분하

십니다. 社長도 菲薄을게수하시려면 남의菲薄도좀 理解를 해주셔야함

즐압니다 執行을해가도 좋습니다 감니다

안쪽이가심순,

(儼然히退場)

(책床위의잇은書類를金庫속에집어넣고감준다)

◇ 明媛, 흰帽子, 背囊, 물통, 輕快한 차림을했다 다른방걸어들었으며

아버지

옴 (치다본다)

가세요

元

승

新元 新元

井승 井승

新元 新元

井승 井승

成績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罪株합니다. 만은 期限을 이번 겨울까지. 卽 今年末까지만 延期 해주십시오.
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一体로 寬大한 處分을 내려주시지요. 네, 判長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몇 번 꺾이나 속인다.)

(冷靜하게) 契約書에는 延期라는 文句가 附여있지 않습니다.

勿論 안 附여 있습니다. 그렇니까 이렇케 請을 올리지는커야 합니다.

그러면 바사부신렌데 고만 가보십시오.

네! (너무나 冷靜함을 보인다. 원통한 생각, 미운 생각이 북받치나 벗진 罪人
이라 풀켜 < 참는다 >). 그러면 亦是 漁場을 差押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契約書에, 그렇게 附여 있지 않았습니까?

附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면서 契約書대로 서로 履行만 하면 고만 아 아닙니다.

너무나 褻하신 말씀이 아니십니까! — 사이 — (다시 漁船) 判長

한번 더 — 생각을 해주십시오, 勿論 契約대로 하면 漁場은 差押당하

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거나 이제까지 말씀한대로 저는 지금 再起

를 決心하고 奮闘하고 있습니다. 그렇거나 一漁場이 없으면 모든 것이 絶望

입니다. 判長 저 한 사람의 事情을 고와 주시는 것보다 저의 事情을 補

償해 주시는 意味라라도 한번 酌을 하시지만, 延期 해주십시오.

(정말 더 내밀고 눈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惠 玉 惠

玉 娥 玉

◇ 惠玉 質素한洋服이다. 검은가방을들었다.

外見도만봐도 女醫의뉘가보인다

들어오다가 이광표를본다

어머! (가거히가려할때)

(년짓이) 누님 — (말하는말소리다)

(웬영문인줄은몰나서 아모말은 못한다

그렇나 어느틈엔지 그雰圍氣에 휩싸혀서 쓸쓸하게된다. 그렇나 두눈만

은 知性的으로 빛나고있다)

◇ 文節, 허기는소리 着于눈아갈때

(舞臺 어두어지며

— 下 幕 —

重

重

(너...크게) 할아버지. 낫튼孫子녀석은 이렇게을너감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活憲이없드래도 잘사는할아세은

저는 아버지갓치 아. 감々해

(나가려고한다)

春

甫

(붓잡는다) 서방님

文

御

重증아

三

霞

가만 내버려 두지름 못하겠디

◇ 두사람 멈추한다

◇ 重증, 다름박진 舞場

文

御

(고개를숙이고) 아님님

사 이

三

霞

(무릎은척하고서) 못된자식들, 차々모두들 어비를을달머가느고나

(집행이를 막, 내던진다) (승려)모나간다 (七聖觀場)

文

御

(마투글의 벌쳐 주저앉이며) (앞치마로 얼굴을속고) 느린진다

◇ 春甫 주먹으로 눈동을 함면짓는다

◇ 立升田, 玉姬 워라고할말말들의 없어지 그냥섰다 亦是 쓸, 한말말들의

다

◇ 나...도 어느틈엔지 나와서섰다 怨女의 感情이라 을듯한말말들의

-39-

文 鄉 위 (원망스런 듯이 차다 보니까 밋친 듯이 나가려고 할 때)

春 甫 (막으스며) 마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서방님도 소견이 많으신데 부득

없느말씀야 드려졌음니다 재가 나가볼래니 마님께서는 그냥 여기 계실쇼

공연히 머감의 불精만 더 높여드릴는지도 읊으니까요

文 郡 (그소리에 속으려진다) (음뜻이 된다)

立 介 田 예그 (春甫를 차다본다)

春 甫 단거들어오것습니다 마님 (發場)

文 郡 (마루밭에 명 하나 앉았다 두눈에는 눈물이어린다)

玉 城 어머니 (同精하는유소려다)

文 郡 아니다 (유그름으로 된 딸을 낳는다)

立 介 田 저 늙은건 언제가야 형의남자가 왜 그렇게 임이 헛공지를 들으셨서

은

文 郡 그런소리하든것이 아님씩

立 介 田 네 (더말은무한다)

文 郡 (더, 주남에 빠진다)

○ 重중의 악쓰는소리

○ 대야 내던지는소리

○ 三綱의호령소리, 春甫의소리

文 郡 (황호하 合聲원으로 나가려할때)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文

重 會

重 會 重 會 重 會

-37-

文 春
鄉 浦

立 重 元 立 元 玉
介 介 介 介 介
田 會 會 田 會 曉

(모퉁이하고 엮다)
(얼굴에 남색을 칠할
아범 안직 안 갖고 나
없애고 들이온다. 和色을 지었스나 哀愁가 속이 언뜻다

高浦에게 눈짓을하며)
(마루 끝에 거러앉아 다리를 들이언고 두 팔로 마루를 짚고 개를 뒤로 제친다)
(발소리도 안 내면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신는다)
(구두를 갖다논다)
(말없이 밟는다)
(아모말없이 손가방과 땀수를 갖다가 元숨을준다)
(말없이 밟는다)

◇ 一回 沈黙

兄弟분의 不快하신 얼굴을 하셔서 애 쓰겠습니다
고 고만을 두십시오. 거러가 갖든 微物도 작을지여서 나르는데 수모모담더하신
엇더한 야단을 맞나 싶지를 몰겠습니다. 좀 멧하신 일들이 계시드래도 서로 참
그런데 君一, 나리, 서방님께서 흥취이게 신저은 아신다면, 마님께서는 도
워든지 조그만한 잘못만 생겨도 마님만 혼자 苦痛을 들으십니다

春 浦
대감마님께서는 적은 아가씨가 집행이로부터 떠린것도, 할미가 건사를 잘못한것이
라고 역정을 내시고 계십니다

元

술

리고 殊版질만하고 앉았소
그러나 나는 너가튼 誇大理想症은아냐 너는 뭐냐, 너는 藝術家라지
藝術家도 實際가 없으면 안돼,

重

술

왜, 그만한 情素이 있다면 사내답게 實行을 못하느냐 말야, 왜 이 집안을
理想머로 밟고平和스럽게 못해놓느냐 말야
왜 못해다, 해놓코말래야 그러나 恨은頑固, 恨은頑固들이 잔뜩 보았어
났는데 잊었하나.

元

술

(따귀를 때린다) 못된놈, 恨은頑固, 恨은頑固,
며려봐

玉

姉

◇ 兄弟救濟의뻬었을때
(나오며) 여보세우 (仲藪를한다)

春

甫

◇ 立介母 나와서 물어본다
(舍廊에서들어오며, 이元술을보며) 나리, 서방님, 글세 이거 무슨일이신
가

春

甫

지금 사랑에서 대감마님앞에 올고 스셋근 마님생각을해서라도 이리할수
이있음니가

— 川 間 —

편이요, 그러나 믿음은 그 격구로 할 아버지편에 섰소

 믿음은 할 아버지 以上의 頑固요

할 아버지의 事大思想보다 믿음의 個人主義가, 더 惡質의 頑固요

 내가 個人主義라고, 내가 個人主義로 뚫한게 뭐냐 나는 오죽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卽 個人主義요 집안을 위하여는 것도 精氣는 믿음 個人의 滿足을 위하여

 뜻이요, 사회를 위하여는 것도 뜻밖은 믿음 個人의 名譽를 생각한 것이요

 뭐야 너는 나를 그렇게 밝게 안보니

 후렴이 그런데야 어떡케 그렇게 안보겠소 믿음 집안을 위하여는, 出處한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을 이만큼이나 견어 주신 어머니의 덕이다나

 孫子까지 보신 神은 신어 머님이 지금도 완고스런 식아 버님앞에서 헛들 못 펴고

 지내시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시고 계신 것도 믿음요, 우리 집안에는 어머니 앞의

 아노 兄嫂씨도 그랬소, 쪽하 애들도 그랬소 후렴이도 그랬소 누구나 이 집안 에

 서 한번이나 마음뚫고 커다랗게 웃어본 사람이 있소

 모두가 데쳐논 파갓치 되어가지고 거름거리까지도 거름자모양으로 —

 영히, 이 것도 집안이란 말이

 믿음, 믿음은 왜 우리 집안을 더 生氣있게 더 和氣있게 自由롭게 밝게
 모든나 단말하

 그리고도 도모하 나) 慶會나 후렴이를 할 아버지 以上으로 感嘆만 하오, 그

는 우리日本의指導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說破를 하겠소.
아버지가 宗敎의 信念과 活動 때문에 容觀까지 하지 않을 것소. 母兄

重 元
會 會

(더 熱精的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아버지는 도라가시겠소. 그렇나 精神과

은 心, 生々하게 살면서 지금 一個의 儼然한 勇氣로서 具體되지 않았소.
그렇나 할아버지께서는 아주까지 옛것을 그대로 가지시고 輕快한
를 혼자 꾸며가지시고 물어 물어 가지 않았소.

뿐만 아니라 점々 더 自己를 固執하고 계시겠소. 보담은 自己를 固執하여
게 自己의 理想을 張揚하고 계시지 않았소.

우리들은 이러한 強硬의 伏從을 해 줄 소. 伏從은 伏從, 도라하고 伏從한 것
우리들의 아노

重 元
會 會

容觀까지한 아버님의 精神을 생각하드려도
너는 아주까지도 伏從에 처한 認識이 不足하다

重 元
會 會

그건 母兄이 들어야 할 소리로. 母兄이 伏從과 高從을 한 것. 母兄이 고귀시
會 會
無條件로 좋다

종교적인 精神이 아니라 좀 더 冷靜하게 우리들의 母兄이 되기를
兄님 다시 말하오. 지금 이 집안에는 서로 浮屠되는 두 世上의 兄弟들이 있었
할 아버지의 世上과 아버지의 世上은.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兄弟들의 아버

重 會

勿論이요, 兄님, 兄님은 이 집안의責任者요. 兄님은, 우리兄弟들의, 맛兄님요, 맛兄님이자, 아버지요, 우리들, 우리들인, 아버지가 없자라나고, 이러한 우리들을, 兄님은, 兄님보담도 그 이상으로, 아버지 갖치, 指導해줄義務가 계속,

그렇나, 兄님은, 우리들을 指導해주시는커녕, 도모하우리들의, 앞길을 妨礙하고있소

元 會

(역지로 참으며) 妨礙한게 뭐냐? - 兄님보담, 더한 束縛요,

重 會

兄님은, 할아버지보담도 더한頑固요, 點은피가없소, 生物이아노 生物이아나고, (점々高調가된다)

元 會

그럼워요, 도대체 아버님이 點은어머님과 어린우리四男妹를 버리고, 몇퍼센트에 이집안을 나가셨소

그것은, 아버님이 가지진 높은理想의 할아버지앞에 容納이되지않엇든까달요 할아버지는 옛날생각, 한때동안 半島를塗炭의빠지게하든事大主義, 孔孟의精神을崇拜하지않고孔孟의난나라全體에 스, 로隸從되려하든 反隸思想, 이러한 할

아버지는 兄님도아시질않소(아) 그렇나 우리들의 아버지는, 지금 우리들보다도, 더, 새로운新覺者이셨소, 그래서, 半島天變을 뒤잡고있든 보담도, 守旧

黨一派가 失敗를삼고있든 工事大主義이다, 烽火를드시엿섯소

이러한 아버지는, 自己들의同志들과가치 日進會를組織해가지고 大亞細亞主義를 높이높이고, 大東亞의幸福은 大東亞의諸民族의團結이되어야하고, 이와가튼團結에

<p>元 重 會 會 나구도 남을련 (흥분이 된다)</p>	<p>重 會 반쪽은 지는 불니쇼 그러나 내가 가진 반쪽은 너의 원쪽보다는 훨씬 낫쇼, 나코도 남을련 (傍由)</p>	<p>元 重 會 會 웃은 것이 아니다 너는 가장 네 생각이 높고 적당한 줄말지 — 그러나 실상 네 생각은 뻔 뚜렷하고 짙은 것이다 원통이 아내 반쪽이</p>	<p>元 重 會 會 웃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어느 편으로든지 徹底해야 한다 뭐냐 너는, 뭐든지 비웃기만 하고 嘲笑만 하고 否認만 하고 — 世上이란 내가 보는 것과 가치, 그것게 위압하고</p>	<p>元 重 會 會 네 생각은 정말 빛들녘다 중와은</p>	<p>元 重 會 會 에 — (介明치 않은 처참소리다, 처다본다) 重會애 (위엄 있는 목소리다)</p>	<p>重 會 아주머니 未妥합니다 ” 빛들녘삼카 (적은 어비) 을 가진 주후한 아이들아 ! ” (담배를, 더, 뻔, 뻔다)</p>	<p>重 會 빛들녘 말슴을 들려 주는 것을 보고 엇딴게 가만히 앉았으면 말 예은 (뻔뻔하게 서서는 居는 房으로 退場)</p>	<p>重 會 철인의 이렇게도 없어서 食餌부터 쓸데없는 討論야 패니 나만 가지고 야단이지, 야니그덤, 아모것도 물드는 아이들에게 그런</p>	<p>元 會 (나오며 嚴然하게) 뭐 그렇치만야.</p>
---	--	---	--	--	--	---	---	---	------------------------------------

明 姫 姉 妹

叔父之心 往つてまゐります

重 會

往つてゐりつしめい (크루소리 柳諭諷)

明 姫

(나가면서) 町噂は? -

重 會

(크게) 叔隸ありた

◇ 明 姫 姉 妹. 웃으며 親場

玉 娥

서방님 애들한테 그런말씀이 당했서은

重 會

아이들일수록 그런말을 듣겨줘야죠

玉 娥

그러시면 서방님게서 禮儀라는것을 指摘하십시오

重 會

禮儀라는 自体는 아름다운 風俗이지만

그 禮儀가 形式化되는데에는 아무런 價値가 없어지는것이죠

玉 娥

그렇지만 서방님 -

重 會

그렇지만이 아닙니다 形式이란것은 열정한 假面에 不適合제에

속으로는 잡어먹을듯이 미운놈에게도 體貌때문에 즉 禮儀때문에 웃는낫

을하지들을 안습니까

웃을때에 숨어하고 이놈할때에도 ” 단호하십시오 ” 그놈잘죽었다 ” 代

身으로 ” 면마나 問擻하십시오 ” 이게다 뭐냐 말이죠 이런것도 禮儀라고

말할수있습니까

이것은 結局 禮儀라는 美名에 虛儀의 랄들을쓰고 었는것에

玉 娥

그렇지만 서방님

重 會 고만된, 이공제 일리(流)수령 현, 무해, 의의죽기(가)는인의있와

立 介 田 네 (원)속해서 들어간다)

重 會 (담배를 꺼내서 피운다)

玉 娥 立 介 아 변도 원하니

立 介 네 (항방히 두변도를가지고나온다) 석방년 단역히 주무섯서요

重 會 잘자다

立 介 (변도를가다가 아이들의 가방속에 너허준다)

○ 明 極寺, 마부르나온다

明 媛 金(금)방의아저씨 오로우

重 會 오로우

明 媛 오로우 御座います

重 會 お前は 馬鹿に 町噂だね

明 媛 礼儀は 町噂から -----

重 會 町噂は 叔隸(후)리

◇ 文 介 邊場

明 媛 姉 妹 (안방을)의(리)다보며) お父さま 往つてまゐります

元 會 의 소 리 往つて いらっしやい

明 媛 姉 妹 (물로)내려와서) お田さん 往つてまゐります

玉 娥 往つて ぬらっしやい

-27-

立	七	玉	七	文	七	文	七	文	七	文	七	明	文	玉	文				
分	星	城	星	鄒	星	鄒	星	鄒	星	鄒	星	距	鄒	城	鄒				
(明姫背의 밤床을가지고 나온다)	물든것석오, 제가 혼이나는판에 남의걱정할새가 있음니가 (뒤처로渡場)	머감마님이 애단치시지 않든	네	자근 아가씨 나갓지	네	여	내 (나가더)	그런 어른은 처음뵈왔어	그렇게 애초부터 내가 뭐라고 그랬니. 어서 다시떠다디려라	서 대야들올 들에다 끼면저버리엿습니다	엇덧게 아시는지 옷을々을 안떠오고 水道물을 떠왔다고 애단 <치시면	뭘 ?	마뻐. 애단났습니 다	◇ 七星, 빈대야를가지고 황々히 登場	할머니. 고만두세요	지	가르켜줬다는게아니라 그런작란을하지못하게 平素브러 잘 일너켜야한단말아	(玉城에게) 아이틀이란 건사를 잘해야하는法이니라	(좀 샅쭉하지며) 그런지만 낫분작란을하라고 가르켜주는 에미도없답니다.

玉 明 玉 明 文 明 文 明 文 明 明 文 明 明 明

媿 媿 媿 媿 鄉 媿 鄉 媿 鄉 媿 媿 鄉 媿 媿

말세 한머니 저 대초나우 뒤에 앉아서 이것을 좌구 맞히고 앉았으면

요것아, 부러진게 맞치질땀하냐

그럼 엉덩해 (음뚱이된다)

(自己亦是 엇쩔잖을 볼리고 무리진행이를 만져어 리기만하며) 너의들의

집행이느꼈할아 버지께서 엉덩해 뚫하시느꼈인행이행이행이

인제 큰원났다 (한편으로 영디를하며 한편이되나 고소해하는態度다)

(전디다 못해서 눈물흘렸는다)

못났게 음지안말고, 영는 이갓가지고 나가서촌할아 버지께 謝罪를하고들여와

”원후부터다 다신안그래것습니다” 고 (절다)

(싫다고 음뚱 흔된다)

어서

(역지모바드며) 할머니 갖치나가

너혼자 나가, 제잡못은 제가잡못했다고하는것이 (위엄있게) 어서

(한편손으로 눈물흘렸으며) 어지로 나간다

(나오다가보며) 明媿야 저어가 왜저러니

(가안히) 촌할아버지 집행이를 부러뜨렸따오)

귀 ? - (흔된다)

◇ 明媿 場

文	七	文	七	玉	文	玉	文	玉	文	玉	文	元	文	元
郷	星	郷	星	城	郷	城	郷	城	郷	城	郷	會	郷	會

네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침때이나 빠더라

네 (안방으로 들어간다)

(미다지를 열고) 아가

(이러나서 눈물을 씻는다) 내

너는 우리집 祭神을 맞들사람야, 그런데 이렇게 어린애 짓을 해서 쓰니

남편앞에 더군다나 아침나절에 누워서 보혀서 쓰니 아모리 똥한말도 못드래

도 참아가지, 참을수록 빛이나는 것은 우리들 한구들의 行實이다

어서, 아범 아침때 갖다 줘라

내 (思想的으로 논를이나 그의 誠意있는態度에 놀나어서 고개 가슴이 찢긴다)

(부끄러움으로)

◇ 文郷, 혼자남음에 가엾게 한숨을 쉰다

(대아틀고 燈場) 마범, 대감마님께서 발시스실음음 떠오시려는대

은 너무찬답쇼, 水滸를 좀 갖다 드릴 랍쇼

水滸들이라면 짐색을 하시는 것은 너도 알면서 그러니

그래도 원각찬것을 엇덜게 합니까

그렇다고 어름을 숙혀서 아쓰나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郗 會 郗 會 郗 會 郗 會

오 거름거리 말소리 一挙一動의 모든 것을 맞치 罪囚나 奴隸같이 ——
 영히 지긋 < 해 > (거는 방으로 들어가 미다지를 휘닷는다) (허기는 소리)
 (미다지를 휘 열며) 여봐 (거는 목소리다)
 (부엌에서 나오며) 아 (過情한 속에도 威嚴이 넘겼다)
 네 (도라보며) 글세 어머님
 미다지, 다디 ——
 네 (맞는다)
 워냐 아츰브러 편들석하고 집안이 ”병문” 인줄아니
 그런데 아니에요, 글세 저, 못난 것이 ——
 (元승의 말을 흘릴 줄지며) 그래게 젊은게 아니냐, 나도 젊은 때에는 특하면
 야속한 성가도 들고 분한 성가도 들어서 너의 아버지 앞에서 울고 불고 그랬다
 그럴 때마다 너의 아버지는 ”여보, 마음을 너그러히 먹어오” ”우리들은
 우리들의 道理만, 다, 하려고 만요, 精誠하냐면 고만요” 하시면서 諄々히
 다윈너 꾸짖기도 하시고 憂憫도 식혀 주셨서
 너같이, 안마의 원한다고 마조 高聲을 높여서 ”여봐” ”저봐” 하긴 혼야
 니 ——
 그제 워냐 상스럽게 특하면, ”여봐” ”저봐” 하고 ——
 잘못했습니다
 사내라는 것은 女子같이 恫怒哀哀를 거트로 받이고 지내면 못스든 것이니라

-19-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元	文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會	鄒
왜	들어가면	어머니	(더, 말을	어머니	접을때는	치는안엇스나	(더, 말을	어머니	접을때는	치는안엇스나	(더, 말을	어머니	접을때는	치는안엇스나	(더, 말을	어머니	접을때는	치는안엇스나	(더, 말을
한편드	있더나	인제는	하려다가	인제는	아침에	며누리를	하려다가	아침에	아침에	며누리를	하려다가	아침에	아침에	며누리를	하려다가	아침에	아침에	며누리를	하려다가
있고	(徽笑)	부역에	가	부역에	연직	를	가	연직	연직	를	가	연직	연직	를	가	연직	연직	를	가
있고		들어	되	들어	어나	도	되	어나	어나	도	되	어나	어나	도	되	어나	어나	도	되
있고		가	다	가	나	도	다	나	나	도	다	나	나	도	다	나	나	도	다
하		지	다	지	가	도	다	가	가	도	다	가	가	도	다	가	가	도	다
니		를	다	를	어	도	다	어	어	도	다	어	어	도	다	어	어	도	다
거		마	다	마	러	도	다	러	러	도	다	러	러	도	다	러	러	도	다
름		무	다	무	우	도	다	우	우	도	다	우	우	도	다	우	우	도	다
거		로	다	로	니	도	다	니	니	도	다	니	니	도	다	니	니	도	다
리		나	다	나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라	라	도	다
		가	다	가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며	다	며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라	라	도	다
			다		라	도	다		라	도	다		라	도	다		라	도	다

할수없든 담요

◇ 立介登場

立 介 母 立介아 년 아가씨를 번도증사려

立 介 介 거는房도 안쓰러는대요

玉 姓 천々히는 못쓰려

立 介 母 内 (부안으로 들어간다)

立 介 母 (退場)

明 姫 (뽕루통해들어온다)

文 姫 왜·또·열말아 자모양아

玉 姓 (그제야 머리뽕포 옷가랑입고 (간치마) 다투트박은다)

明 玉 姓 어머니 열는 나가봐

玉 姓 지금 나가지않나

明 玉 姓 오늘은 출할아버지계서 못지도않으시고

” 거구로뻐구나. 예미보담 자식들이먼저나오게까 하시면서 잘치다보시지도않으

시겠지

文 文 郷 어서 나가봐라 (玉姓에게)

玉 文 郷 내 (상을약간정그려고 숨죽으로 退場)

文 郷 明媛이는 어딜가니?

玉 郷 아마 새사랑으로 갔나봐요

-17-

春 甫 아—주, 마법계서 편을 들어주신니가

귀온이 나서

文 郷 그때 돌재서방님은 ?!

春 甫 참, 돌재서방님음쇼 재리속에서 야단판차산답쇼 이리나고 자는 찻까지 참

견을안허도 쫓차안으내음쇼

예구 그서방님은 어려서브러 심술만피우신단말야

文 郷 그때 안원어났사

春 甫 수萬예 알슴임쇼 ———— 그런데 마남 돌재서방님은 여재방에도 밤을새우었나

볼듯쇼, 그신식소연인지 편지때문에 특하시면 밤을새우나 일직면어나갈수
가 있음니가 (나가면) 저는 섯재서방님이 저원조함오

그래도, 이탄의大將감은 끝재서방님이심나타, 타갓은尼窟분이신데도, 큰나
리님은 나시나드사나 珠服밖예몰트사교 들개서방님은 밤낮 사랑이니만방
이니하는 신식小說에맞차시고

立 介 卬 (나오며) 이건 마남말에 무슨버릇없는소리요, 차마들어나면도 못하면서

무슨 특하면 女使從夫야

春 甫 그래도 女使從夫야 이따 밤에보자 (退 場)

立 介 卬 여그 저항은건 한百살어나돼야 칠야날까

함맘 남편한텐는 그관말을하면못쓰네

立 介 卬 네, 죄송스런습니다 (禮) 그렇치만 현제든지 그것때문임쇼 배호지못한건

-15-

文 郷

뒀들야

◇ 姉妹, 음찰한다. (그렇나 明嬪은 실족해지고 明嬪은 실족이 아니다.)

文 郷

어서들나가 뵈옵고 들어오더라

明 嬪

내 (막나카려할때)

春 甫

(뒷채에서 登場)

明 嬪

(春甫를보고 氣着盜勢를하고 拳手 敬禮)

春 甫

(誇作 있는 動作으로 自己가 是를 示함)

明 嬪

할아밤도 옛날 軍隊之心이라자

春 甫

그럼 여부가있소 내가 아래보여도 變兵예로 易乘り兵隊之心 だよ

明 嬪

才かシイナ 好

春 甫

やかまほい 好

○ 一回 웃는다

文 郷

고만까불고 어서들 나가와

明 嬪

네 (退場) (舍廊間으로)

文 郷

그러다 들 아려나섯든가

春 甫

퍼니 야만만 땃났습다

文 郷

왜?

春 甫

큰나라게서는 벌써 영복을입으시고 무슨일이그런까 많은신리 珠成을놓고

이섰구요

-13-

호 介 (자리를, 다, 객하고 나온다. 기둥에 걸린 스테벅기와 등대를 띄여가지고 용은

호를(한다)

(연제문지, 이것은 이 자리에만 걸려있다. 그후 천주는 物件이든지 각자있는 자
리가 달라졌고 누구든지 쓰고 난 뒤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것으로도 이 집
안의 家魂의 一端을 엿볼 수가 있다)

◇ 玉 號, 沈 號를 갖내고 房으로 들어간다

호 介 언지나 다 나 머릿머고 나거든 쓰라

호 介 介 (비외스레벅기를 제자리에 걸고 여객들을 불러리려고 號 場)

玉 號 玉 號도 안 원어났고나

원어인지 오셔는 늦잠꾸만 의들이 파가

(생각이웃는다)

호 介 介, 재빨리 玉 號이는 원어날

(夜服을 입고 마루 뒷방에서 툭 뛰어나오면서)

할머니 玉 號히 주무셨습니까 (침)

호 介 이려났고나 벌써

언제이려났을아세요 할머니를 잠잠 불러드린다고 우리들이 뒷방으로 나가서 옷

들에서 洗手까지하고 이것제

(팔을버려서 制服까지입었다는 표정을 한다)

언니는 ?

立 文	立 玉	立 玉	立 文	立 文	立 玉	文 春	文 春	文 春	春 春
介 鄉	介 姓	介 姓	介 鄉	介 鄉	介 姓	鄉 甫	甫 甫	甫 甫	甫 甫
집송스럽습니다 (退場)	그런말하는데 아내 누가 마시말씀의뎡구를 하든가	니가 ?	그리고 우리들먹을것은 여재남은 시금치나넛콩 토장국이냐 그리고	네	글세, 가만있게 내가 맨들러니	(나오며) 마님 오늘아침 대감마담床에는 무슨과개를 향가르	(玉姓에게) 너도 얼른 버리빚고 하얀디리고 들어오너라	오늘도 야만나것네, 해가 꽃디것까지 올라도 하얀홍도 안들어온다고	네 (退場)
		간 잠맛처럼, 점대처럼 소곰국을 맨들지말고						새사랑에가서 큰나라도깨고 뒷천에가서 큰재서방님도 계계	
		(좀, 크게) 내							
		飲食이란것도 基本常識이 있어야 料理의加減이 잘되는法야							
		그러서 아시는 점대 책까지퍼노흐시고 저, 신전애가 셋까맛게 라기만했습							

호

介

(뒤주머레 노대 악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 가시 를 들어 떠 다 가 만 들 것 대 는 다.)

玉

岫

(덧 배 를 열 어 제 떠 라 고 마 루 로 만 절 한 이 로 나 온 다 純 白 色 의 穉 衣 (後 窟 한 면 이 다)
를 입 고 낯 을 길 을 하 면 서 나 온 다.)

(文 鄉 을 보 고 낯 을 을 뵈 며 친 를 하 며.)

어 머 나 단 후 하 주 무 엇 서 은

오 냐

鄉

玉

岫

(호 介 를 만 을 들 어 보 며.) 향 수 를

立

介

내 (곰 부 의 冷 水 와 과 라 구 를 가 다 는 다 비 는 같 도 가 다 는 다.)

文

鄉

(柔 和 한 목 소 리 로.) 여 여 석 流 수 하 고 목 자 란 아 어 라 혹 시 할 아 버 지 게 서 를
어 오 서 고 웃 일 을 깃 을 보 시 면 면 역 장 내 신 다

玉

岫

(향 수 를 올 하 며.) 내 (무 엇 당 해 하 나 餘 色 은 무 변 다.)

文

鄉

아 범 은 임 떠 자 나

玉

岫

물 은 깃 서 은

文

鄉

거 는 肩 에 서 안 자 구 나
새 사 랑 에 서 안 들 어 왔 서 은 (설 무 죽 해 진 다.)

文

鄉

◇ 그 동 안 · 호 介 · 거 는 肩 에 들 어 가 서 자 리 를 각 한 다
◇ 春 甫 · 비 와 삼 대 를 가 지 고 나 와 서 스 레 가 를 잡 는 다 나 가 려 고 한 다
할 아 범

호 介 母 (고개를끄덕) 하먼) 어기새 머리를 다 비스듬한가

(무심하고 음성이 끊어진다)

호 介 (한손이 문밖을막고 한손을잡는다)

호 介 母 (짙금하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魂 塚

三 門

文 鄉 (음탕에서나온다 門도문개열고갖고 거름거리도標도성스런다. 머리를안나게

밧고 着구 부를발났다. 할머니는됐스나 그야버지말씀으로 痛痛을 다함

다. 매우안穩한 癖이나 어딘지참치이보인다 이것은 남편의 田家한뒤브리

생긴밧갈이다) (거는席던 門의 안집원년지않은것을보고 가벌계 상을정기린다)

文 鄉 (호介에게) 모두들 아려나시라고 그려라

네..... (거는방門앞에서) 아씨

文 鄉 (안방으로들어와가서 행주차마를입고 나인다)

호 介 아씨

玉 娘의소리 왜 이럿게 아단이냐

호 介 마님게서 열는 이려나시라고 그려세요

玉 娘의소리 누가 자는줄아려 洗수를 보나

호 介 지금 보요

玉 娘의소리 洗수론도 안착코 이려나라고 하는뜻은 어디선 배화면었서

◇ 痛靛, 마당에서 뜰을 쓴다

◇ 玄介머슴, 부엌안에서 아침을 한다

◇ 玄介, 마루밑에 잠친다

◇ 거는房, 몇객은 갖쳐여왔다

開 幕

◇ 玄介, 失守를 해서 동상(발판)을 더여막린다

痛 甫 (가만히) 操心해라 (거는房편을가르킨다)

玄 介 (발판을 다시바문노르며) 고개를 까막(?)한다)

玄 介 甫 (부엌에서나오며) 팔을짓고행주치마를잡는다)

여보 — 장작좀자다 주시구로

痛 甫 나는 손이 몇인구

玄 介 甫 군소리 없이는 일이 안되슈 ?

痛 甫 (무심결에 좀, 큰음소리로) 네여 —

玄 介 甫 쉬 — (거는房편을가르킨다)

痛 甫 (좀 음침하며, 뒷걸음으로나간다) (悲場)

玄 介 甫 (치다보고 엎쳐쓰는다, 차차 마루끝이므로 흥취바도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흥한다)

玄 介 甫 (사람편을가르킨다) ?

玄 介 (사람편을가르킨다)

— 濃厚한 古典에 沾着하였다. 누구나 이 舍廊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道浪만을 古禮에 依하지 않아서 는 야단이 난다.

孫元會와 長婦 文卿主人 以外의 이 집사람들은, 이 舍廊을 ” 멧나리 ” 혹은 ” 단世上 ” 이라고 불렀다. 이 舍廊, 거는 房에는 常叔七星이 가자고 있다.

X

안방은 文卿夫人의 母女의 居室이요, 거는 房은 元會夫婦의 居室. 마루안쪽 房은 明姬姊妹의 工夫室. 뒷채 井房 두 間는 重會의 書齋. 아랫 房은 慶會의 居室. 中門 밖 行廊에는 春浦 洋風으로 지여 노흔 舍廊이 있다. 家人들은 이 舍廊을 ” 적은 舍廊 ” 멧은 ” 새 舍廊 ” 이라고 불렀다.

보이지는 않으나 큰 사랑과 적은 사랑 사이에, 거다란 大軒나무가 있고 그 아래 代々로 내려오는 우물(井戶)이 있다. 家人들은 서로대인上水道를 常用하나 三酸翁만은 이 井戶 水を 專用한다. 洗手는 勿論, 飲料 一 加를 —

그리고 井戶 옆에 三間瓦屋이 詞堂이다

X

○ 昭和十七年 初夏 (陰四月八日頃)

○ 지금 그 어느날, 이른 아침

第一幕 大庁

舞臺、京城위대예있는古屋 七령大庁

원편구석으로 舍廊으로廻하는一角隅 그다음으로 아루락인간이 있는
는방、中廊이 ”부남”은 잡어제친 大庁、

마루正面으로 雙窓이나고 그밖은마루 그속으로 扃扉의 두개、안방과부엌
은 隅란보인다 舍廊뒤에는 梧桐나무 門 앞 담 밑에는 花壇 (百摺나무
가 中心이 되어있다) 부엌 앞, 앞으로 뒷걸음으로 濼하는 階、보이지않어도 좋
다)

密席편으로 中廊과 아래처가 있는도랑。 마루簷下에는 古風의 ”風鈴”
두개의四月八日燈 (古風) (그러나燈 밑에는 「長麗長久」 「皇軍萬歲」
라는日의 友부標記가 달렸다

마루에도 古風의 뒤주 찬장

뒤주위도 ”축융”과항아리들, 찬장위에도 윤이나는목판, 함지, 漆、
花紋席이라는平床 거는방簷下에는 서籠 들한편에는 병아리 ”우리”
거위한살이 것々을며 앞뒤들로 궁둥이짓을하고 단긴다。

(三霞家の構造)

舍廊은 三霞翁의 住居였다 이집全体가 古典에 잠겨있으나 더욱이 이舍廊만은 더

幕 場

第一幕 遠山家大庁

第二幕 世舍廊 (一幕부터一個月뒤)

第三幕 世舍廊

才一場 二幕부터一年뒤、夕

才二場 一場부터數日後、朝

第四幕 大庁 (三幕二場부터一年後)

外

歸人愛國班員(モンベイ部隊)

若干

立介 (그외말)

七星 (常奴)

新井裕陽 (漁場主)

警所団長

町総代

河原純 (遠山造船所支配人)

住山山紅 (妓生、重會の恋人)

十九才

十八才

五十二才

四十才

五十一才

四十三才

二十四才

歷 史

回 幕 五 場

宋 影

時。

昭和十七年夏

所。

京城

人物

遠山三霞 (班族)	八本
文柳夫人 (그외長歸客)	五十五才
元念 (그외長孫, 社長)	三十五本
重念 (그외次孫, 文學家)	三十二本
慶念 (그외末孫, 志願生)	二十一才
惠玉 (그외孫女, 女医)	二十五才
玉禧 (그외長孫, 師)	三十一才
明姬 (그외曾孫女)	十四本
明媛 (그외曾孫女)	五本
春甜 (老僕)	六十五本
立治母 (그외母)	五十一本

三、翁は或程度まで 子の思想を理解し、一歩進んでは、その正しさを知ってはみた、にも拘らず自介の体に浸透してゐた至大思想と、又良心のみに導かれたる、忠貞胆の爲、どうと殺子を密着までさせた。しかし、翁には一つの希望が燃つてゐる。それゆゑに、どうと、三男一女の豫差があつた、せめて、この豫差にでも、自己流の思想に伏従させ、自介の一家にならぬ程の監督(面影)を、保ちて置く——と。

しかし、その希望の動向は、どうだらうか。

長孫は、現代の知識家としてその上府会議員にまでなつてゐる。次孫は新しき文學者として文學界の幹部となつてゐる、末の孫は、進んで志願兵になつて第一線で働いてゐる孫也、慈子同、女医専を卒へて、自ら、社会事業だる、無料免費診療所を設け、世医となつて幸公をさしてゐる。又、その、曾孫達は、翁が自介の命の如く大事にしてゐる、系傳(繪福)まで敬慕しようと強直してゐる。

翁の思想は一つの悲哀となつた。

しかし、翁の回顧も、こんな世代の子孫達の新しき精神に融合せられる様になつて来た。

それ故、末孫が戦地を名譽ある皇軍として抜群の偉勲を建てたのであつた。

思はざる曾孫の偉勲と聖戰の偉勲、感奮する周囲の勇氣に、大衝擊を受けた翁は、猛然と自介の非を悟つた。

「これが、歴史の流ではあらず、

図でもある

”下”

梗概”

物語は遠山一家の家族史として終始する

一、遠山三徳翁は 韓末の大官として、中旧党(閔氏一派の至大主義、即、清国依存主義)の

幹部でもあった

甲申政変(明治二十八年頃) 親日政変、金玉均一派の改革運動の際、命まで危き程憂こへ

持つてゐる

こゝを環境にゐた三徳翁は 日本に対する認識不足

(ゆりも憎悪と輕蔑)が一つの自己流の思想となつたのである

しかし、 西村には

東洋の傳統精神だる

”忠孝”の一念が堅い、その上、”人に負けぬ”、”義に殉ず”と云ふ意気まで燃えてゐる

今、八十の老酸となつても、その精神だけは、若くしく燃えてゐるのである

二、その子 春人(劇には登場しない)の人物は、合併前後先覺者団体 ”日進会”の前衛介

子であつた

これで、父とは、思想的に対立する。しかし、彼も、善ら認識が足らぬ、父親でも正面に衝

突するのは、人の子としての道(孝道)でない、と云ふことを悟つて出家をする。そして

東京に、往つてこの運動を続けだが、中途、患つて客死をする。

しかも彼は、翁の一人息子であつたのである

第三回演劇競演大會所演台本

宋影作

現代劇

歷史

四幕六場

劇團藝苑座所演脚本